WEBVTT

00:00:09.840 --> 00:00:11.036
여러분, 반갑습니다.

00:00:11.208 --> 00:00:14.312
지난 시간까지 품사를 공부했잖아요.

00:00:14.412 --> 00:00:16.001
단어 단위까지 살펴봤습니다.

00:00:16.101 --> 00:00:20.684
단어를 더 쪼개면 형태소
단위까지 나올 수 있을 텐데

00:00:20.784 --> 00:00:24.756
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
있는 최소 단위입니다.

00:00:24.856 --> 00:00:26.097
다시요.

00:00:26.197 --> 00:00:36.214
형태소는 의미를 가진
최소 단위이다.

00:00:36.314 --> 00:00:38.387
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.

00:00:38.487 --> 00:00:41.031
우리 음운을 공부했었잖아요?

00:00:41.131 --> 00:00:46.882
음운이라 함은 뜻을 구별해주는
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해서

00:00:46.982 --> 00:00:48.721
소리 개념이었던 거고.

00:00:48.821 --> 00:00:51.881
이거는 소리 개념이 아니라
실제적인 형태를 봤을 때

00:00:51.981 --> 00:00:54.873
그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.

00:00:54.973 --> 00:01:01.387
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두 가지를
다 이야기하고 있어요.

00:01:01.487 --> 00:01:05.459
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
그것을 형태소라고 봐주고요.

00:01:05.559 --> 00:01:08.846
또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

00:01:08.946 --> 00:01:11.125
그것을 형태소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01:11.225 --> 00:01:16.557
이 문법적인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
의미와 관련된 요소라기보다는

00:01:16.657 --> 00:01:18.552
사실 기능적인 요소가
좀 더 클 거거든요.

00:01:18.652 --> 00:01:20.271
이렇게 분리해보면 되겠고요.

00:01:20.371 --> 00:01:24.621
그래서 사실 형태소는
어느 정도 문법 앞쪽에

00:01:24.721 --> 00:01:28.121
품사 같은 거 공부하면서 조금
다루어봤던 내용들입니다.

00:01:28.221 --> 00:01:31.882
그래서 쪼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
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

00:01:31.982 --> 00:01:33.704
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,

00:01:33.804 --> 00:01:37.810
형태소는 단어를 조금 더 쪼갰을
때 형태소가 나오잖아요.

00:01:37.910 --> 00:01:40.276
또 반대로 이야기하면
형태소를 묶어서

00:01:40.376 --> 00:01:42.190
단어를 생성해나가는 방식이고.

00:01:42.290 --> 00:01:45.767
우리가 다음 11강에서는
단어의 형성법이라고 해서

00:01:45.867 --> 00:01:48.644
어근과 어근의 결합 합성어,

00:01:48.744 --> 00:01:52.546
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를
합치는 그런 파생어,

00:01:52.646 --> 00:01:54.090
이런 것들을 공부를
하게 될 거예요.

00:01:54.190 --> 00:01:56.240
그 기초 단위가 이번
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0:01:56.340 --> 00:01:59.391
그래서 이 형태소라는
것을 따져보게 되면

00:01:59.491 --> 00:02:04.071

거의 블록 조각이라고
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02:04.171 --> 00:02:07.732
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
블록 조각 같은 거를 보면

00:02:07.832 --> 00:02:11.589
어떤 블록은 되게 유용하게 여기저기
붙일 수 있는 블록이 있어요.

00:02:11.689 --> 00:02:13.693
가장 기본형 네모 짜리
있지 않습니까?

00:02:13.793 --> 00:02:15.298
구멍 4개 달려 있는 거.

00:02:15.398 --> 00:02:17.230
이런 것들은 어떻게든
끼울 수가 있는데,

00:02:17.330 --> 00:02:19.440
보면 되게 모양이 특이한
블록도 있겠죠.

00:02:19.540 --> 00:02:22.765
그런데 그런 특이한 블록도
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

00:02:22.865 --> 00:02:25.545
다른 무언가와 결합을
해서 성을 만들든,

00:02:25.645 --> 00:02:27.413
뭐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

00:02:27.513 --> 00:02:29.509
예를 들어 성꼭대기
원뿔 모양의 기둥.

00:02:29.609 --> 00:02:31.536
이런 것들은 정말
유용하지는 않습니다.

00:02:31.636 --> 00:02:33.820
왜? 딱 그 기능밖에
쓸 수가 없거든요.

00:02:33.920 --> 00:02:36.899
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과
조합하고 붙이고 할 수는 있되

00:02:36.999 --> 00:02:40.275
그것이 좀 더 자유롭게 떼었다
붙였다 할 수 있는 놈들도 있고

00:02:40.375 --> 00:02:44.652
자유도는 좀 떨어지지만 다른 것과
붙여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

00:02:44.752 --> 00:02:46.222
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.

00:02:46.322 --> 00:02:48.511
그래서 이런 블록 조각의
종류가 다양하듯이

00:02:48.611 --> 00:02:52.133
형태소의 종류도 상당히
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

00:02:52.233 --> 00:02:53.597
한번 예를 들어 보죠.

00:02:53.697 --> 00:02:55.194
여기에 첫 문장.

00:02:55.294 --> 00:02:56.367
바지가 크다.

00:02:56.467 --> 00:02:59.792
이거를 단어 단위로만
따지게 되면 품사죠.

00:02:59.892 --> 00:03:06.211
품사 단위로 따지게 되면 우선
이렇게 명사가 나오겠죠.

00:03:06.311 --> 00:03:08.082
다음에 또 뭐도 나옵니까?

00:03:08.182 --> 00:03:11.871
가라는 조사가 만들어지고요.

00:03:11.971 --> 00:03:18.233
그다음에 크다, 이거는
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

00:03:18.333 --> 00:03:21.822
물론 품사 통용을 공부했기 때문에
크다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.

00:03:21.922 --> 00:03:24.739
그런데 여기서의 크다는 상태를
제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

00:03:24.839 --> 00:03:26.769
당연히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.

00:03:26.869 --> 00:03:29.976
품사 단위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
3번만 끊을 수 있는데

00:03:30.076 --> 00:03:32.168
여기서 형태소를 쪼개게 되면

00:03:32.268 --> 00:03:34.643
한 번 더 쪼갤 수 있는
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.

00:03:34.743 --> 00:03:38.833

우선 바지라는 이 단어의 경우에는,

00:03:38.933 --> 00:03:42.207
음절로 따지게 되면 2음절, 바하고
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

00:03:42.307 --> 00:03:44.766
이거를 만약에 바나
지로 더 찢게 되면

00:03:44.866 --> 00:03:49.235
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, 즉 하의의
의미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.

00:03:49.335 --> 00:03:52.040
바에도 있고 것도 있고 지에도
있는 것도 아닙니다.

00:03:52.140 --> 00:03:57.935
따라서 얘는 용케 단어와 형태소가
일치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.

00:03:58.035 --> 00:03:59.301
또 가도 마찬가지죠.

00:03:59.401 --> 00:04:01.113
가는 더 이상 찢을 수조차 없죠.

00:04:01.213 --> 00:04:04.113
그래서 역시나 형태소로 쪼개게 돼도

00:04:04.213 --> 00:04:05.885
바지, 가 2개로 나눠지는
거는 똑같습니다.

00:04:05.985 --> 00:04:09.127
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
크다의 경우에는 그래요.

00:04:09.227 --> 00:04:13.448
우리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

00:04:13.548 --> 00:04:26.073
그리고 플러스 서술격 조사인
이다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죠?

00:04:26.173 --> 00:04:28.482
활용이 가능했죠.

00:04:28.582 --> 00:04:34.321
활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간과
어미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.

00:04:34.421 --> 00:04:37.363
그래서 어간은 고정되어
있는 부분이요.

00:04:37.463 --> 00:04:39.766
어미는 활용되는 지점을
이야기했었는데

00:04:39.866 --> 00:04:41.738
이거를 그대로 정복을 시켜보면

00:04:41.838 --> 00:04:44.707
저 크다의 경우에도 어간은 크죠.

00:04:44.807 --> 00:04:48.002
그런데 이 다랑 무조건 결합하는
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.

00:04:48.102 --> 00:04:54.176
이 다뿐만이 아니라 크고,
크지, 크니와 같이

00:04:54.276 --> 00:04:58.158
다양한 어미들을 떼었다가 분리했다가
결합할 수 있다는 것.

00:04:58.258 --> 00:04:59.850
분리성이 있다는 거죠.

00:04:59.950 --> 00:05:01.987
또한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.

00:05:02.087 --> 00:05:04.390
앞에 크만 와야 될
거는 아니라는 거죠.

00:05:04.490 --> 00:05:08.381
먹다, 웃다 이런 다른
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

00:05:08.481 --> 00:05:10.097
뛰다,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

00:05:10.197 --> 00:05:13.163
크하고 다는 반드시 붙어있어야
되는 놈은 아니었다.

00:05:13.263 --> 00:05:17.410
서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못
줍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.

00:05:17.510 --> 00:05:20.213
이렇게 따지게 되면 애네들은
서로 블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00:05:20.313 --> 00:05:23.579
크라는 블록과 다라는
블록을 떼었다가

00:05:23.679 --> 00:05:26.041
그리고 다른 데에
다시 붙일 수 있는,

00:05:26.141 --> 00:05:27.335
이런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죠.

00:05:27.435 --> 00:05:30.070
그래서 형태소 단위로 따지게 되면

00:05:30.170 --> 00:05:33.191
바지, 가, 그리고 크, 다.

00:05:33.291 --> 00:05:35.712
이렇게 4개의 형태소가
나오게 됩니다.

00:05:35.812 --> 00:05:38.191
밑에 있는 것도 그런
식으로 쪼개볼까요?

00:05:38.291 --> 00:05:40.091
먼저 품사 단위로 쪼개게 되면

00:05:40.191 --> 00:05:41.661
집안일이 많이 남았다.

00:05:41.761 --> 00:05:46.570
집안일 자체가 명사로 잡히고

00:05:46.670 --> 00:05:52.065
이는 조사, 그다음에 많이는 부사,

00:05:52.165 --> 00:05:55.538
그다음에 남았다는 사전
찾으면 뭐 찾아야 되죠?

00:05:55.638 --> 00:05:57.567
남다를 찾아야 되겠죠.

00:05:57.667 --> 00:06:01.559
그러면 동사로 보면 되겠죠.

00:06:01.659 --> 00:06:05.356
그러면 명사, 조사, 부사,
동사 이렇게 품사로는 4개지만

00:06:05.456 --> 00:06:07.187
형태소 단위로 쪼개게 되면,

00:06:07.287 --> 00:06:11.079
집안일의 경우에 3음절인데

00:06:11.179 --> 00:06:14.627
이 3음절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
되는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.

00:06:14.727 --> 00:06:18.285
가령 이 집만 하더라도 꼭
뒤에 안이 붙어야 되느냐.

00:06:18.385 --> 00:06:19.527
그렇지 않죠.

00:06:19.627 --> 00:06:22.758
오히려 집 앞에
초가집, 벽돌집과 같이

00:06:22.858 --> 00:06:25.151
앞에 어떤 단어를 붙일
수도 있는 것이고요.

00:06:25.251 --> 00:06:27.970
또 여기에 있는 집
뒤에도 마찬가지죠.

00:06:28.070 --> 00:06:29.403
안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6:29.503 --> 00:06:31.983
꼭 집안으로만 쓰여야 되는
단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.

00:06:32.083 --> 00:06:35.107
또 안은 독립적으로도
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

00:06:35.207 --> 00:06:36.421
일도 마찬가지죠.

00:06:36.521 --> 00:06:40.808
큰일과 같이 꼭 집안+일이
아니라 큰+일의 구조로

00:06:40.908 --> 00:06:42.387
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

00:06:42.487 --> 00:06:45.651
얘네들은 다 형태소를
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.

00:06:45.751 --> 00:06:47.979
분리성을 가짐을 우리는
확인해보는 겁니다.

00:06:48.079 --> 00:06:49.841
이는 더 이상 못
쪼개기 때문에 하나.

00:06:49.941 --> 00:06:57.711
그다음에 많이는
형용사인 많다의 의미와

00:06:57.811 --> 00:06:59.478
굉장히 유사하다는
거는 알고 있어요.

00:06:59.578 --> 00:07:00.777
많다, 많이.

00:07:00.877 --> 00:07:03.424
그러나 이 많다에서
많이로 움직이는 것은

00:07:03.524 --> 00:07:06.941
단지 이런 용언의 활용과는
좀 차이가 있었습니다.

00:07:07.041 --> 00:07:08.565
어떤 거였죠?

00:07:08.665 --> 00:07:12.123

접미사라는 이, 즉 부사와
접미사라는 이가 붙어서

00:07:12.223 --> 00:07:14.947
완벽하게 품사가
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죠.

00:07:15.047 --> 00:07:17.771
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
확실하게 공부하는 거는

00:07:17.871 --> 00:07:21.496
다음 시간에 접미사가 도대체
어미랑 뭐가 다르냐.

00:07:21.596 --> 00:07:23.010
이런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23.110 --> 00:07:24.691
그래서 많하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7:24.791 --> 00:07:26.947
꼭 많이 이랑만 붙는 것이 아니라

00:07:27.047 --> 00:07:32.342
많게, 많도록, 많다 이런 식으로
많이 꼭 이랑 붙을 필요는 없었다.

00:07:32.442 --> 00:07:33.747
그런데 이도 마찬가지예요.

00:07:33.847 --> 00:07:35.722
꼭 많이랑 붙을 필요는
없었다는 이야기죠.

00:07:35.822 --> 00:07:38.319
예를 들면 길다에서 길을 딱 떼어서

00:07:38.419 --> 00:07:40.892
길이길이 기억되리 할 때 길이.

00:07:40.992 --> 00:07:43.071
이런 식으로 만들 수
있을 것이고요.

00:07:43.171 --> 00:07:44.990
높이,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

00:07:45.090 --> 00:07:46.261
높이 날아라 할 때.

00:07:46.361 --> 00:07:49.671
그러니까 이라는 놈이 역시
많이랑만 붙는 것이 아니다.

00:07:49.771 --> 00:07:51.695
그랬을 때는 둘 다 뭐가 있다?

00:07:51.795 --> 00:07:55.272
자유도가 있다, 독립성이 있다,
찢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00:07:55.372 --> 00:07:57.356
즉 분리성을 생각해보면 되고요.

00:07:57.456 --> 00:07:59.166
남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7:59.266 --> 00:08:01.661
사전을 찾게 되면 남다를
찾아야 되는데,

00:08:01.761 --> 00:08:04.245
이 사이에 선어말 어미라는
았이 들어갔던 거죠.

00:08:04.345 --> 00:08:07.153
역시 마찬가지로 남겠다,
이렇게 쓸 수 있고.

00:08:07.253 --> 00:08:08.876
남는다, 이렇게 쓸 수 있고.

00:08:08.976 --> 00:08:10.788
꼭 았이랑 결합해야
되는 거는 아니었어요.

00:08:10.888 --> 00:08:12.063
았도 마찬가지.

00:08:12.163 --> 00:08:14.189
꼭 남이랑 붙어 있을
이유는 없는 겁니다.

00:08:14.289 --> 00:08:16.435
보았다, 이런 식으로
쓸 수 있는 거고요.

00:08:16.535 --> 00:08:20.080
또 남았고, 남았지,
남았으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

00:08:20.180 --> 00:08:21.452
다도 역시 쪼갤 수 있다.

00:08:21.552 --> 00:08:23.437
형태소는 다 쪼개게 됩니다.

00:08:23.537 --> 00:08:27.569
그래서 전부 다 따지게
되면 9개나 나오게 되죠.

00:08:27.669 --> 00:08:29.382
밑에 것도 가볼게요.

00:08:29.482 --> 00:08:33.841
품사 단위로 따지게 되면 가을바람이
하나의 명사로 조성이 된 거고.

00:08:33.941 --> 00:08:37.471
이는 조사가 되겠죠?

00:08:37.571 --> 00:08:41.104
그다음에 꽤는 부사가 되죠.

00:08:41.204 --> 00:08:44.402
시원하다, 형용사.

00:08:44.502 --> 00:08:47.941
상태를 나타냅니다.

00:08:48.041 --> 00:08:50.950
시원한다, 라는 표현은
만들어지지 않죠.

00:08:51.050 --> 00:08:54.379
그러면 이때 동사가 아닌
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.

00:08:54.479 --> 00:08:56.175
형태소를 더 쪼개게 되면,

00:08:56.275 --> 00:09:00.373
가을은 가하고 을은 쪼갰을 때 계절의
의미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.

00:09:00.473 --> 00:09:02.570
그래서 가을 살려줘야겠네요.

00:09:02.670 --> 00:09:05.087
바람 역시 살려줘야겠죠.

00:09:05.187 --> 00:09:06.919
바람은 더 이상 쪼갤 수
없을 것 같습니다.

00:09:07.019 --> 00:09:11.783
그러나 가을과 바람이 반드시 같이
붙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거죠.

00:09:11.883 --> 00:09:15.762
예를 들면 초가을, 늦가을
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.

00:09:15.862 --> 00:09:17.210
가을햇빛 등등.

00:09:17.310 --> 00:09:19.069
그다음 바람 같은
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.

00:09:19.169 --> 00:09:20.969
앞에 다른 거 붙일 수
있는 거 아니에요.

00:09:21.069 --> 00:09:24.179
앞바람이라든지 맞바람이라든지
산들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요.

00:09:24.279 --> 00:09:26.362
다음 이, 조사 쪼개줘야겠고요.

00:09:26.462 --> 00:09:28.925

꽤라는 부사는 더 못
쪼갤 것 같죠?

00:09:29.025 --> 00:09:30.534
하나 짜리가 됩니다.

00:09:30.634 --> 00:09:34.662
시원하다,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?

00:09:34.762 --> 00:09:38.770
시원하, 여기까지는 살려줘야 되나?

00:09:38.870 --> 00:09:40.073
그렇지 않습니다.

00:09:40.173 --> 00:09:43.893
예를 들면 시원하다뿐만 아니라
시원스럽다, 이런 단어 있죠?

00:09:43.993 --> 00:09:49.187
그러면 시원의 의미가
사라지는 것도 아니고

00:09:49.287 --> 00:09:53.473
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분리를
할 수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어요.

00:09:53.573 --> 00:09:55.968
그러면 역시 시원도
쪼갤 수 있습니다.

00:09:56.068 --> 00:09:58.595
하다 블록과 달리 스럽다 블록
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09:58.695 --> 00:10:00.649
그러면 또 하다는 어떨까요?

00:10:00.749 --> 00:10:05.330
이놈도 역시 시원하다,
시원하고, 시원하지, 시원하니

00:10:05.430 --> 00:10:08.865
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
또 쪼갤 수 있다는 거죠.

00:10:08.965 --> 00:10:13.879
그래서 개수는 7개의
형태소로 쪼갤 수가 있어요.

00:10:13.979 --> 00:10:19.054
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품사하고
형태소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

00:10:19.154 --> 00:10:23.546
품사의 경우와 형태소의 개수가
일치하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

00:10:23.646 --> 00:10:29.046
어지간하면 품사의 개수보다 형태소가
더 많이 찢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.

00:10:29.146 --> 00:10:31.128
그러면 다음 거.

00:10:31.228 --> 00:10:36.286
이렇게 우리는 형태소라는 것이 블록
개념이라는 거를 인지는 했는데,

00:10:36.386 --> 00:10:42.898
형태소를 나눌 때 조금
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

00:10:42.998 --> 00:10:48.261
이제 여러분에게 이 문장 세 가지의
형태소가 몇 개인지 그냥 단순히,

00:10:48.361 --> 00:10:51.559
형태소의 특성에 대해서는
우리가 또 배워야 되니까

00:10:51.659 --> 00:10:55.383
그냥 형태소가 몇 개인지 얼마나
쪼갤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요.

00:10:55.483 --> 00:10:56.802
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.

00:10:56.902 --> 00:11:00.422
얼마나 쪼개야 될까요?

00:11:00.522 --> 00:11:06.383
그, 다음 는, 다음 헛 쪼갭니다.

00:11:06.483 --> 00:11:11.298
예를 들면 헛이라는 게 쓸데없는의
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일 텐데.

00:11:11.398 --> 00:11:14.292
꼭 이게 발질과 붙을
이유는 없었죠.

00:11:14.392 --> 00:11:18.524
예를 들면 헛수고,
헛기침과 같은 그런 표현도

00:11:18.624 --> 00:11:24.092
헛이라는 공동된 의미를 가지고 붙였다
떼었다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.

00:11:24.192 --> 00:11:26.369
발질이 꼭 붙어 있어야
되는 한 단어입니까?

00:11:26.469 --> 00:11:27.961
역시나 그렇지는 않죠.

00:11:28.061 --> 00:11:33.084
발, 그리고 질 서로 서로
찢어낼 수 있는 거죠.

00:11:33.184 --> 00:11:38.361

질 같은 경우에도 ~질과 같이 엄청
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

00:11:38.461 --> 00:11:39.924
얘네들도 쪼갭시다.

00:11:40.024 --> 00:11:41.598
로도 쪼개야 되겠죠.

00:11:41.698 --> 00:11:43.708
헛발질이 조사니까요.

00:11:43.808 --> 00:11:46.923
그다음 우리를 더 이상
쪼갤 수는 없죠.

00:11:47.023 --> 00:11:51.742
우하고 리를 쪼갰을 때는 1인칭
복수의 의미는 사라져버릴 테니까요.

00:11:51.842 --> 00:11:52.978
를.

00:11:53.078 --> 00:11:54.580
그다음이에요.

00:11:54.680 --> 00:11:58.077
웃겼다 형태소 어떻게 쪼갤까요?

00:11:58.177 --> 00:12:00.917
형태소를 쪼개야 될 때
주의해야 되는 거는

00:12:01.017 --> 00:12:07.326
첫 번째, 원형으로
만들어줘야 돼요.

00:12:11.890 --> 00:12:14.649
원형에서 형태소를 나누어야
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2:14.749 --> 00:12:19.092
즉 웃겼다는 사전을 찾게 되면
웃기다를 찾으면 되기는 한데,

00:12:19.192 --> 00:12:21.717
웃기다 역시도 어디에서 출발한
거라고 볼 수 있죠?

00:12:21.817 --> 00:12:23.847
웃다에서 출발한 거로
볼 수 있습니다.

00:12:23.947 --> 00:12:27.388
따라서 웃, 그다음에
기 이렇게 들어가는데

00:12:27.488 --> 00:12:29.447
겼이 하나 짜리가 아니라는 거죠.

00:12:29.547 --> 00:12:31.688

여기에는 뭐가 축약되어
들어가 있습니까?

00:12:31.788 --> 00:12:35.334
었이라는 과거선어말 어미인 거죠.

00:12:35.434 --> 00:12:37.648
이렇게 쪼갭니다.

00:12:37.748 --> 00:12:41.068
그래서 그는 헛발질로 우리를
웃겼다, 라고 했을 때는

00:12:41.168 --> 00:12:46.173
쪼갤 때 웃, 기, 었, 다를
다 쪼갤 수 있어야 된다.

00:12:46.273 --> 00:12:49.216
즉 원형에서 나눠줘야 된다는
거 꼭 기억하시고요.

00:12:49.316 --> 00:12:53.397
이때는 역시 웃었다, 꼭 기가
있을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.

00:12:53.497 --> 00:12:55.567
얘도 역시 분리성이 있었던 것이고.

00:12:55.667 --> 00:12:57.534
또 웃기겠다, 이렇게 만든다면

00:12:57.634 --> 00:12:59.989
꼭 었이 앞뒤에 붙어
있어야 될 필요도 없었고

00:13:00.089 --> 00:13:03.399
웃기었지, 웃기었고 이런
식으로 활용했을 때

00:13:03.499 --> 00:13:05.692
다도 꼭 었에 붙어 있어야
되는 거는 아니었다.

00:13:05.792 --> 00:13:08.278
즉 서로 간에 찢었다 붙였다
할 수 있는 블록이었다.

00:13:08.378 --> 00:13:09.398
이렇게 볼 수 있죠.

00:13:09.498 --> 00:13:11.179
이제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11.279 --> 00:13:13.529
놀 사람이 없으니 집에 가,
라고 했는데

00:13:13.629 --> 00:13:17.557
어떻게 쪼개면 될까요?

00:13:17.657 --> 00:13:21.296

하나냐? 그게 아니라,

00:13:21.396 --> 00:13:29.544
놀+ㄹ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.

00:13:29.644 --> 00:13:32.282
ㄹ이 뭔가요?
한번 생각해보자고요.

00:13:32.382 --> 00:13:36.686
구조상 여기 지금 놀은 사전을 찾게
되면 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?

00:13:36.786 --> 00:13:38.621
놀다를 찾아야죠.

00:13:38.721 --> 00:13:41.958
그런데 이 놀다라는 동사가
형태를 우리는 알잖아요.

00:13:42.058 --> 00:13:43.554
꾸미는 구조가 됐어요.

00:13:43.654 --> 00:13:46.387
그러면 사람이라는 명사를
꾸미는 거기 때문에

00:13:46.487 --> 00:13:49.643
이 앞에 있는 놀은 관형어가
됐다는 이야기인데,

00:13:49.743 --> 00:13:52.552
품사는 관형사가 아니잖아요.

00:13:52.652 --> 00:13:54.011
우리 공부했었죠?

00:13:54.111 --> 00:13:57.735
동사나 형용사가 품사는
바뀌지 않은 채로

00:13:57.835 --> 00:14:01.911
관형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
어미가 바뀌어야 돼요.

00:14:02.011 --> 00:14:04.893
그 어미가 바로 관형사형
전성 어미가 있죠.

00:14:04.993 --> 00:14:07.670
그 관형사형 전성 어미
어떤 게 있습니까?

00:14:07.770 --> 00:14:12.434
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에 음식
같은 거를 꾸미겠다 그러면

00:14:12.534 --> 00:14:18.166
먹은 음식, 먹는 음식, 먹을 음식,
먹던 음식 이런 놈이잖아요.

00:14:18.266 --> 00:14:22.888
이렇게 네 종류에 해당하는 관형사형
전성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,

00:14:22.988 --> 00:14:26.667
이렇게 놀다 같이 용언의
어간이 ㄹ 받침인 경우에는

00:14:26.767 --> 00:14:29.194
매개 모음 으가 안 오잖아요.

00:14:29.294 --> 00:14:32.647
그래서 ㄴ이나 는이나
ㄹ이나 던이 올 텐데,

00:14:32.747 --> 00:14:37.115
이때 놀 사람이라는 구조에서는
뭐가 왔다는 거로 볼 수 있죠?

00:14:37.215 --> 00:14:40.089
꾸며주기 위해서는 ㄹ이 왔던
건데 겹쳐 있는 겁니다.

00:14:40.189 --> 00:14:43.360
그런데 이 겹쳐 있다고
할지라도 형태소는 쪼개줘야죠.

00:14:43.460 --> 00:14:46.431
왜냐?

00:14:46.531 --> 00:14:50.045
주의 2.

00:14:53.654 --> 00:14:59.837
어미 없는 어간 없다.

00:14:59.937 --> 00:15:04.230
용언이 나왔으면 어미가 있어야죠.

00:15:04.330 --> 00:15:06.689
어간이 있으면 어미는
같이 붙어 있어야지

00:15:06.789 --> 00:15:09.068
어미 없이 어간 혼자
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.

00:15:09.168 --> 00:15:12.481
그러니까 분명 여기
놀다에서서 놀이 어간이라면

00:15:12.581 --> 00:15:14.526
어미가 뭘까를
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.

00:15:14.626 --> 00:15:18.177
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,
탈락되어 있는 ㄹ까지 챙겨서

00:15:18.277 --> 00:15:19.725
개수를 만들어줍니다.

00:15:19.825 --> 00:15:22.240
그래서 놀, ㄹ 이렇게
잡아주셔야 됩니다.

00:15:22.340 --> 00:15:23.602
그래서 2개가 잡혔고요.

00:15:23.702 --> 00:15:25.388
그다음에 사람 하나 짜리죠.

00:15:25.488 --> 00:15:26.799
다음에 이.

00:15:26.899 --> 00:15:29.201
다음 없으니는 어떻게 할까요?

00:15:29.301 --> 00:15:32.013
사전 찾으면 없다를 찾아야
될 테니까 기본형 없.

00:15:32.113 --> 00:15:33.980
그리고 다 대신에 뭐가 붙었다?

00:15:34.080 --> 00:15:35.499
으니가 붙어 있어요.

00:15:35.599 --> 00:15:39.501
주의 3.

00:15:42.007 --> 00:15:50.613
매개모음 으는 따로
나누지 않습니다.

00:15:55.614 --> 00:15:59.833
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는
없으니,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.

00:15:59.933 --> 00:16:01.999
없으니 뭐 하다, 놀
사람 없으니 뭐 했다.

00:16:02.099 --> 00:16:05.410
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
뉘앙스를 갖고 있게끔

00:16:05.510 --> 00:16:09.005
예를 들면 집에 가니가
나와야 되겠죠.

00:16:09.105 --> 00:16:10.085
똑같아요.

00:16:10.185 --> 00:16:12.677
그런데 가으니라고 안 하고 역시
없니, 라고 안 하는 이유는

00:16:12.777 --> 00:16:16.231
용언의 어간에 받침이
있고 없고에 따라서

00:16:16.331 --> 00:16:18.797
매개 모음 으가 오냐, 안
오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.

00:16:18.897 --> 00:16:21.155
그러니까 니, 으니 기능이 똑같은데

00:16:21.255 --> 00:16:24.590
으를 쪼개서 독립적으로
나눌 필요가 없게 됩니다.

00:16:24.690 --> 00:16:26.193
그래서 의미는 하나 짜리.

00:16:26.293 --> 00:16:28.525
매개모음 으는 하나로
잡아주면 되겠고요.

00:16:28.625 --> 00:16:32.790
그다음에 집, 다음 에,
그다음에 몇 개죠?

00:16:32.890 --> 00:16:35.431
가 하나 짜리 하면 망하는 거죠.

00:16:35.531 --> 00:16:38.392
이거 사전 찾으면 가다를
찾아야 되는데.

00:16:38.492 --> 00:16:41.192
그러면 용언의 어간이
가고 어미가 뭐겠어요?

00:16:41.292 --> 00:16:43.625
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, 어미가.

00:16:43.725 --> 00:16:46.594
그러면 뭐가 왔다? 아가 왔다는
이야기죠, 명령형 어미.

00:16:46.694 --> 00:16:50.340
만약에 예를 들어 잡다라고 할 경우에
잡아,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.

00:16:50.440 --> 00:16:53.208
어미 없이 너 이거 잡,
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

00:16:53.308 --> 00:16:55.125
얘도 마찬가지, 너 집에 가.

00:16:55.225 --> 00:16:58.315
이렇게 어감만 쓴 거는
아니었다는 겁니다.

00:16:58.415 --> 00:17:01.445
그런데 용케 이 어간과
어미의 형태가 일치할 때

00:17:01.545 --> 00:17:03.525
우리 동음 탈락 현상 만들어주죠?

00:17:03.625 --> 00:17:05.790
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됐을지라도

00:17:05.890 --> 00:17:08.271
형태소의 개수는 안
올 수밖에 없다.

00:17:08.371 --> 00:17:13.723
그래서 놀다, 그다음에 가 때문에
이런 문장을 살펴봤던 것이고요.

00:17:13.823 --> 00:17:16.100
그다음에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.

00:17:16.200 --> 00:17:20.986
나 좀 빨리 도와줘,
어떻게 쪼개야 될까요?

00:17:21.086 --> 00:17:23.816
일단 나, 좀.

00:17:23.916 --> 00:17:27.654
나 대명사, 좀 부사.

00:17:27.754 --> 00:17:29.972
그다음에 빨리 어떻게 할까요?

00:17:30.072 --> 00:17:34.275
이 빨리도 가만히 보면 빨하고
리 쪼갤 수 없잖아요.

00:17:34.375 --> 00:17:35.643
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

00:17:35.743 --> 00:17:41.339
여러분 이놈의 품사가 뭐예요?
부사죠.

00:17:41.439 --> 00:17:45.253
그런데 이 부사라는
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

00:17:45.353 --> 00:17:49.352
뭐가 어근이었는지 어근에 대한
정보 이제 드릴 겁니다.

00:17:49.452 --> 00:17:52.146
빠르다라는 단어가 있죠.

00:17:52.246 --> 00:17:55.795
빠르다에서 중심 뜻을 가지고 있는
부분이 바로 빠르, 어근이 될 텐데.

00:17:55.895 --> 00:17:59.613
이 빠르에 뭐가 더해졌기에
빨리가 됐을까.

00:17:59.713 --> 00:18:02.514
바로 부사와 접미사
이가 결합된 거죠.

00:18:02.614 --> 00:18:05.698
이렇게 빠르-이가 만들어지게
되면 기억하십니까?

00:18:05.798 --> 00:18:12.467
용언의 어간이라고 보고 여기에
어미 아가 붙었다고 하면

00:18:12.567 --> 00:18:14.079
우리 결과물 어떻게 나오죠?

00:18:14.179 --> 00:18:15.567
빨라 나오죠.

00:18:15.667 --> 00:18:18.261
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?

00:18:18.361 --> 00:18:22.375
용언의 활용에 있어서
으가 탈락한 상태에서

00:18:22.475 --> 00:18:25.869
용언의 어간에 르이 덧붙게
되면 이렇게 빨라가 나오는,

00:18:25.969 --> 00:18:28.622
이거를 우리는 르 불규칙
용언이라고 했죠.

00:18:28.722 --> 00:18:32.054
바로 어간 불규칙 활용에
해당하는 용언이 될 텐데.

00:18:32.154 --> 00:18:33.143
마찬가지예요.

00:18:33.243 --> 00:18:35.420
여기 부사와 접미사 이가 붙었어도

00:18:35.520 --> 00:18:38.488
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이기
때문에 환경적으로 같아요.

00:18:38.588 --> 00:18:39.974
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

00:18:40.074 --> 00:18:43.642
으는 빠지게 되고 어간에
르이 더해지면서

00:18:43.742 --> 00:18:46.133
빨리라는 부사가 만들어진 거죠.

00:18:46.233 --> 00:18:51.041
따라서 이 형태소를 나눌
때에도 빠르+이로 만들어놓고

00:18:51.141 --> 00:18:53.320
그리고 쪼개면 됩니다.

00:18:53.420 --> 00:18:56.145
빠르+이 해서 빨리를
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8:56.245 --> 00:18:59.895
그래서 형태가 변한 것들도 좀
챙겨봐달라는 이야기고요.

00:18:59.995 --> 00:19:02.504
다음에 돕다 역시 마찬가지죠.

00:19:02.604 --> 00:19:05.469
도와줘,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?

00:19:05.569 --> 00:19:07.382
돕다에서 출발한 거잖아요.

00:19:07.482 --> 00:19:11.101
돕다+아, 이렇게 봐야겠죠.

00:19:11.201 --> 00:19:14.197
그러면 돕+아가 됐을 때
ㅂ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

00:19:14.297 --> 00:19:15.989
이 ㅂ이 뭐로 바뀌죠?

00:19:16.089 --> 00:19:19.302
오로 바뀌어서 와 해서 뒤에
어미에 붙는 거 아닙니까?

00:19:19.402 --> 00:19:22.397
그러나 기본적인
형태소는 원형에서 돕,

00:19:22.497 --> 00:19:24.610
그리고 아 하고 끊어줘야 되겠고.

00:19:24.710 --> 00:19:26.289
줘도 마찬가지죠.

00:19:26.389 --> 00:19:30.174
도와주다, 라고 할 때
주, 보조용언 개념이에요.

00:19:30.274 --> 00:19:32.674
주 더하기 뭐가 더해졌다?

00:19:32.774 --> 00:19:38.040
종결어미 어, 그래서 주어가
주니까 줘가 만들어지는 거죠.

00:19:38.140 --> 00:19:44.800
형태소를 따지게 되면
나, 좀, 빠르, 이, 돕, 아, 주, 어 해서

00:19:44.900 --> 00:19:46.406
이렇게 8개가 잡히게
된다는 겁니다.

00:19:46.506 --> 00:19:49.385

그래서 이런 부분에는
형태소를 형태를 변화해서

00:19:49.485 --> 00:19:51.822
원래 기본형이 무엇이었을까,

00:19:51.922 --> 00:19:54.109
원형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서

00:19:54.209 --> 00:19:56.816
그때 쪼개놓고 판단해보면 됩니다.

00:19:56.916 --> 00:19:59.128
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,

00:19:59.228 --> 00:20:02.063
이렇게 형태소를 쪼개는
작업은 알겠는데

00:20:02.163 --> 00:20:06.578
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이
두 가지가 있어요.

00:20:10.995 --> 00:20:17.686
첫 번째는 바로 자립성 유무입니다.

00:20:17.786 --> 00:20:20.270
자립적이냐,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

00:20:20.370 --> 00:20:22.731
자립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는

00:20:22.831 --> 00:20:25.276
이거는 자립 형태소라고 불러주고요.

00:20:25.376 --> 00:20:28.195
이미 이름에서 그 의미가 묻어나죠?

00:20:28.295 --> 00:20:36.641
그렇지 않다, 자립성이 없다면 그거를
의존 형태소라고 불러줄 겁니다.

00:20:36.741 --> 00:20:39.461
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

00:20:39.561 --> 00:20:41.559
다음 문장을 통해서
확인해보겠습니다.

00:20:41.659 --> 00:20:57.025
우선 형태소부터 쪼개보도록 합시다.

00:20:57.125 --> 00:21:01.060
여러분, 잠깐 멈춰놓고
형태소를 끊어보도록 하세요.

00:21:01.160 --> 00:21:03.478
나누면 이렇게 되겠죠.

00:21:03.578 --> 00:21:08.467
오늘, 은, 잘, 익, 은.

00:21:08.567 --> 00:21:12.357
익다, 익고, 익지, 익은
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.

00:21:12.457 --> 00:21:15.127
수박, 을, 먹다,

00:21:15.227 --> 00:21:18.270
그리고 었, 과거 선어말
어미, 그리고 다.

00:21:18.370 --> 00:21:19.280
이렇게 쪼갭니다.

00:21:19.380 --> 00:21:20.632
개수가 굉장히 많네요.

00:21:20.732 --> 00:21:23.673
이중에서 우리는 자립과
의존을 골라봐야 되는데

00:21:23.773 --> 00:21:26.413
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
이럴 수 있어요.

00:21:26.513 --> 00:21:27.715
자립성이 있다.

00:21:27.815 --> 00:21:29.713
자립성이 있는 거 한번
표시해볼게요, 동그라미로.

00:21:29.813 --> 00:21:33.604
먼저 오늘이 자립일 것 같네요.

00:21:33.704 --> 00:21:36.071
확실하게, 그렇죠?

00:21:36.171 --> 00:21:38.864
그다음에 수박 같은 거
자립일 것 같죠.

00:21:38.964 --> 00:21:42.333
자립적으로 혼자 쓸 수 있다고
생각하면 오늘, 수박 이런 거.

00:21:42.433 --> 00:21:43.905
품사가 지금 뭐예요?

00:21:44.005 --> 00:21:46.321
명사, 명사 이런 것들을
볼 수 있습니다.

00:21:46.421 --> 00:21:50.023
다음에 또 자립이
있을까요, 없을까요?

00:21:50.123 --> 00:21:52.318
우선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21:52.418 --> 00:21:56.026
이 먹었다의 경우에는
문법 용어를 따지게 되면

00:21:56.126 --> 00:22:00.475
용언의 어간, 선어말 어미,
그리고 어말 어미.

00:22:00.575 --> 00:22:03.350
이렇게 될 텐데 어간과
어미는 아까도 봤지만

00:22:03.450 --> 00:22:05.640
떨어질 수가 있다, 없다?
없다.

00:22:05.740 --> 00:22:08.917
어간은 어미에 의존하고
어미는 어간에 의존해야죠.

00:22:09.017 --> 00:22:10.680
서로 잘 살아봐야죠.

00:22:10.780 --> 00:22:12.718
그래서 얘네들은
자립적이지 않습니다.

00:22:12.818 --> 00:22:15.344
즉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는
자립적일 수가 없구나.

00:22:15.444 --> 00:22:18.717
그다음, 그러면 이
익은도 마찬가지죠.

00:22:18.817 --> 00:22:21.120
앞쪽에 있는 익은, 용언의 어간이고

00:22:21.220 --> 00:22:24.552
그다음에 은은 관형사형
전성 어미이기 때문에

00:22:24.652 --> 00:22:26.912
어쨌든 어간과 어미
자립적일 수가 없죠.

00:22:27.012 --> 00:22:29.510
여기서 봐야 되는 게
을이나 은 어떻습니까?

00:22:29.610 --> 00:22:33.008
이런 거는 품사로 조사잖아요.

00:22:33.108 --> 00:22:36.309
그런데 조사 역시 단독으로
쓰는 것이 아니라

00:22:36.409 --> 00:22:38.545
항상 앞 단어에 붙어서

00:22:38.645 --> 00:22:41.299

그 앞 단어의 기능이
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격조사,

00:22:41.399 --> 00:22:43.167
또 뉘앙스 보태주는 보조사.

00:22:43.267 --> 00:22:45.912
단어와 단어 연결지어주는 접속
조사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22:46.012 --> 00:22:47.520
즉 자립적이지 않습니다.

00:22:47.620 --> 00:22:50.921
이제 관건은 잘의 문제인데요.

00:22:51.021 --> 00:22:53.291
잘은 품사로는 부사가 되겠죠.

00:22:53.391 --> 00:22:58.374
익다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자립
형태소일까요, 아닐까요?

00:22:58.474 --> 00:23:01.849
바로 자립 형태소입니다.

00:23:01.949 --> 00:23:04.157
밑에 것도 한번 가볼게요.

00:23:04.257 --> 00:23:06.176
그 이야기를 들으니 울 것 같다.

00:23:06.276 --> 00:23:08.498
이때 형태소부터 쪼개보도록 할게요.

00:23:08.598 --> 00:23:10.996
그, 이야기, 를.

00:23:11.096 --> 00:23:12.778
기본형에서 돌아온다고 했죠.

00:23:12.878 --> 00:23:15.138
들으니를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?

00:23:15.238 --> 00:23:17.852
듣다를 찾아야 되는 단어죠.

00:23:17.952 --> 00:23:21.292
더하기 으니가 붙은 거죠, 듣으니.

00:23:21.392 --> 00:23:25.724
이렇게 해서 형태는 모음 어미
붙었을 때 ㄷ이 ㄹ로 변하는

00:23:25.824 --> 00:23:28.175
ㄹ 불규칙 활용 걸린 겁니다.

00:23:28.275 --> 00:23:30.184
그래서 듣-으니.

00:23:30.284 --> 00:23:33.319

그다음 울 어떻게 되는 거죠?

00:23:33.419 --> 00:23:38.879
울 것, 이렇게 가게 되면 울다에 울인데
곧바로 것을 꾸밀 수 없는 거죠.

00:23:38.979 --> 00:23:41.787
그러면 얘는 형태소 또 어떻게?

00:23:41.887 --> 00:23:44.441
울 그리고 ㄹ 잡아야
된다는 거죠.

00:23:44.541 --> 00:23:46.199
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필요해요.

00:23:46.299 --> 00:23:47.673
그래야 꾸미는 겁니다.

00:23:47.773 --> 00:23:49.653
그래서 울, 그다음에 ㄹ.

00:23:49.753 --> 00:23:51.909
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
위에 거로 형성되고.

00:23:52.009 --> 00:23:53.490
그다음 어떻게 됩니까?

00:23:53.590 --> 00:23:56.818
것, 같, 다 이렇게
쪼개게 되는데.

00:23:56.918 --> 00:24:00.451
그러면 이중에서 자립성이
있는 거를 따져보자고요.

00:24:00.551 --> 00:24:04.748
일단 제일 확실한 거 이야기
같은 거 자립적이죠.

00:24:04.848 --> 00:24:10.726
같다에서 같이나 다 또는 듣으니에서
듣, 으니, 울, ㄹ.

00:24:10.826 --> 00:24:13.431
이런 것들 전혀 자립적이지
않을 겁니다.

00:24:13.531 --> 00:24:14.965
용언의 어간, 어미니까.

00:24:15.065 --> 00:24:16.662
또 조사를 를도 마찬가지예요.

00:24:16.762 --> 00:24:19.338
지금 여기서 챙겨 봐야 되는
거는 이 것이라는 놈하고

00:24:19.438 --> 00:24:22.156
그다음에 그라는 놈인데.

00:24:22.256 --> 00:24:25.689
품사를 따지게 되면,

00:24:25.789 --> 00:24:29.961
우리 잘은 부사였죠?

00:24:30.061 --> 00:24:35.044
그는 이야기를 꾸며주는
관형사입니다.

00:24:35.144 --> 00:24:36.295
다음요.

00:24:36.395 --> 00:24:39.701
여기에 것이라는 거는
명사는 명사인데

00:24:39.801 --> 00:24:41.958
앞에 관형어의 수식을
받아야 되는 뭐다?

00:24:42.058 --> 00:24:45.423
의존 명사라고 했죠.

00:24:45.523 --> 00:24:50.147
이쯤에서 정리해볼까요?

00:24:50.247 --> 00:24:52.693
자립 형태소와 의존
형태소를 이야기했을 때

00:24:52.793 --> 00:24:54.830
여러분이 헷갈려하는
거는 딱 세 종류예요.

00:24:54.930 --> 00:24:57.858
부사와 관형사와 바로
의존 명사입니다.

00:24:57.958 --> 00:25:01.013
얘네들은 왠지 자립적이지 않을
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

00:25:01.113 --> 00:25:03.694
예를 들면 야, 그거
어떻게 익었냐?

00:25:03.794 --> 00:25:05.395
응, 잘.

00:25:05.495 --> 00:25:08.359
우리가 위에 오늘이나
수박, 이야기 같은 거를

00:25:08.459 --> 00:25:10.728
자립적이라고 생각하는
이유가 뭐겠습니까?

00:25:10.828 --> 00:25:12.742
명사, 단독으로 쓸 수 있어?

00:25:12.842 --> 00:25:14.186
너 뭐해? 이야기.

00:25:14.286 --> 00:25:16.178
그거 뭐야? 수박.

00:25:16.278 --> 00:25:17.405
이런 식으로 쓰는 거.

00:25:17.505 --> 00:25:18.712
언제 만날까? 오늘.

00:25:18.812 --> 00:25:22.127
이렇게 해서 단어 단위로만
이야기해도 독립적으로 쓰이니까

00:25:22.227 --> 00:25:23.556
자립 형태소 맞잖아요.

00:25:23.656 --> 00:25:25.388
맞는 이야기인데,

00:25:25.488 --> 00:25:28.460
그러면 여기 자리나
그 같은 경우에는

00:25:28.560 --> 00:25:33.126
꾸며주는 품사들이잖아요.
그러면 얘네들은 어떠냐?

00:25:33.226 --> 00:25:35.167
그거 어떻게 익었어?
잘.

00:25:35.267 --> 00:25:37.613
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?

00:25:37.713 --> 00:25:40.341
그런데 얘는 어떤 이야기야?
그.

00:25:40.441 --> 00:25:42.682
너무 이상해.

00:25:42.782 --> 00:25:44.969
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식이
그럴 수 있어요.

00:25:45.069 --> 00:25:50.513
왜? 수식해주는 단어가 수식 받는 단어
없이 어떻게 혼자 쓰이냐는 거죠.

00:25:50.613 --> 00:25:51.584
이런 느낌.

00:25:51.684 --> 00:25:55.112
또 그다음 의존 명사에는 수식을
받아야되는 거예요, 오히려.

00:25:55.212 --> 00:25:57.358

그거는 뭐야?
빵.

00:25:57.458 --> 00:25:58.184
이럴 수는 있지만.

00:25:58.284 --> 00:25:59.056
그거 뭐야?
것.

00:25:59.156 --> 00:26:00.320
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.

00:26:00.420 --> 00:26:03.100
뭐 하는 것, 이런 식으로
항상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

00:26:03.200 --> 00:26:06.314
얘가 어떻게 의존적이지
않을 수가 있어요?

00:26:06.414 --> 00:26:09.063
단어의 명칭도 의존 명사잖아요.

00:26:09.163 --> 00:26:11.035
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아닌가요?

00:26:11.135 --> 00:26:12.314
전혀 아닙니다.

00:26:12.414 --> 00:26:16.184
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
게 의존 형태소를 따질 때

00:26:16.284 --> 00:26:23.933
부사나 관형사나 그리고
의존 명사 자체는

00:26:24.033 --> 00:26:28.299
의존 형태소가 아닌
자립 형태소예요.

00:26:28.399 --> 00:26:32.410
눈에 확 들어오는 놈들이야
당연히 자립이라고 챙겨주겠지만

00:26:32.510 --> 00:26:35.202
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놈은
딱 세 종류란 말이에요.

00:26:35.302 --> 00:26:38.168
얘네들을 자립 형태소라고
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,

00:26:38.268 --> 00:26:40.625
띄어쓰기의 유무입니다.

00:26:40.725 --> 00:26:42.236
띄어 쓸 수 있는가.

00:26:42.336 --> 00:26:46.230

앞 단어와 띄어 쓸 수
있는가가 핵심이에요.

00:26:46.330 --> 00:26:59.772
자립 형태소는 앞 단어와
띄어 쓸 수 있는 형태소를

00:26:59.872 --> 00:27:01.270
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.

00:27:01.370 --> 00:27:06.274
그러면 지금 어떤 게 의존
형태소에 속하는 겁니까?

00:27:06.374 --> 00:27:10.263
조사를 앞 단어랑 붙여 써야지
띄어 쓸 수 있던가요?

00:27:10.363 --> 00:27:11.644
못 띄어 쓰죠?

00:27:11.744 --> 00:27:14.430
조사는 찰싹찰싹 붙여야 되니까
걔는 의존 형태소에 속합니다.

00:27:14.530 --> 00:27:19.330
또 용언의 어간은 앞
단어와 붙일 수는 있는데

00:27:19.430 --> 00:27:21.856
뒷 단어랑은 절대 떨어질
수가 없기 때문에

00:27:21.956 --> 00:27:23.697
무조건 어간만 혼자
쓸 수는 없잖아요.

00:27:23.797 --> 00:27:26.140
그래서 앞 단어와
떨어지는 거는 가능하지만

00:27:26.240 --> 00:27:28.043
뒤에랑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

00:27:28.143 --> 00:27:31.219
얘는 확실하게 의존 형태소의
느낌이 나는 놈이고

00:27:31.319 --> 00:27:32.798
또 어간만입니까?

00:27:32.898 --> 00:27:35.736
서로 간에 짝짝꿍 붙어
있어야 될 어간의 어미.

00:27:35.836 --> 00:27:38.438
이런 것들은 다 의존 형태소라고
볼 수밖에 없겠죠.

00:27:38.538 --> 00:27:43.609
세 번째 문장을 한번

보도록 할게요.

00:27:43.709 --> 00:27:45.511
형태소를 끊어볼게요.

00:27:45.611 --> 00:27:47.558
옛사람들은.

00:27:47.658 --> 00:27:53.300
옛, 그다음에 사람.

00:27:53.400 --> 00:27:56.894
옛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오지만

00:27:56.994 --> 00:28:00.116
옛사람을 옛과 사람이라고
끊어주는 이유는

00:28:00.216 --> 00:28:01.998
옛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

00:28:02.098 --> 00:28:04.841
사람도 독립적으로 쓸 수
있는 단어이기 때문이겠죠.

00:28:04.941 --> 00:28:12.387
옛 같은 경우에 옛 집에서
옛 학교에 갔다고 이야기할 때,

00:28:12.487 --> 00:28:15.856
우리는 이렇게 쓰겠죠.

00:28:15.956 --> 00:28:25.455
옛 학교, 이렇게 씁니다.

00:28:25.555 --> 00:28:27.562
옛 학교를 붙여서 쓰지 않아요.

00:28:27.662 --> 00:28:29.811
원래 이놈의 품사는 뭐라는 겁니까?

00:28:29.911 --> 00:28:34.399
바로 관형사죠, 아주
대표적인 관형사.

00:28:34.499 --> 00:28:39.337
그래서 관형사는 뒤에 나와 있는
체언을 꾸며주기 위한 품사이고,

00:28:39.437 --> 00:28:40.885
이렇게 해서 띄어 쓰는 거죠.

00:28:40.985 --> 00:28:42.874
모든 단어와 단어는 띄어서 쓰니까.

00:28:42.974 --> 00:28:44.668
조사는 뺀다면 다
띄어 쓰는 거거든요.

00:28:44.768 --> 00:28:46.465
선생님, 이거 왜 안 띄어 썼어요?

00:28:46.565 --> 00:28:47.833
왜 안 띄어서 쓸까요?

00:28:47.933 --> 00:28:49.374
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.

00:28:49.474 --> 00:28:51.188
이미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.

00:28:51.288 --> 00:28:55.009
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
단어는 붙여 씁시다, 라고 해서

00:28:55.109 --> 00:28:57.125
한 단어로 만들어준 겁니다.

00:28:57.225 --> 00:28:59.392
그런 단어가 한둘이겠습니까?

00:28:59.492 --> 00:29:04.758
예를 들어 첫 월급이라는 단어,
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.

00:29:04.858 --> 00:29:06.774
한 단어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.

00:29:06.874 --> 00:29:10.161
그래서 첫 띄고 월급 꾸며주는
역시나 첫은 관형사죠.

00:29:10.261 --> 00:29:15.921
그런데 우리가 첫눈이나
또는 첫사랑,

00:29:16.021 --> 00:29:20.027
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등재가 되어
있는 구축된 단어란 말이에요.

00:29:20.127 --> 00:29:23.064
따라서 이 첫과 이 첫이 다릅니까?

00:29:23.164 --> 00:29:26.736
똑같죠, 똑같은 건데 이렇게
결합이 된 단어들은

00:29:26.836 --> 00:29:28.972
우리가 인위적으로 찢을 수는 없죠.

00:29:29.072 --> 00:29:31.418
이미 사전에 등재가 되어
있는 한 단어가 됐으니까.

00:29:31.518 --> 00:29:34.881
그래서 옛 사람의 경우도 찢지
않고 이렇게 붙여 쓰는 겁니다.

00:29:34.981 --> 00:29:36.608
이미 단어로 구축이 됐으니까요.

00:29:36.708 --> 00:29:37.677

그다음요.

00:29:37.777 --> 00:29:41.522
들, 이거는 띄어낼 수 있는 거죠.

00:29:41.622 --> 00:29:43.212
꼭 붙어 있어야 되는
거는 아니잖아요.

00:29:43.312 --> 00:29:45.181
꼭 사람들 뒤에 쓰여야
되는 건 아니니까요.

00:29:45.281 --> 00:29:48.755
학생들, 학교들 이렇게
쓰면 되니까요.

00:29:48.855 --> 00:29:50.740
또 은, 찢어주고요.

00:29:50.840 --> 00:29:52.311
맨발은 어떨까요?

00:29:52.411 --> 00:29:55.749
맨이 꼭 발 앞에만
있어야 되는 거냐.

00:29:55.849 --> 00:29:56.770
그렇지는 않습니다.

00:29:56.870 --> 00:30:01.423
맨몸, 맨살, 맨손과 같이
발 떼어낼 수 있겠죠.

00:30:01.523 --> 00:30:02.751
즉 분리성이 있습니다.

00:30:02.851 --> 00:30:04.554
발도 마찬가지죠.

00:30:04.654 --> 00:30:08.186
신발 같이 신과 발 쪼개는
것처럼 발 떼어서

00:30:08.286 --> 00:30:11.066
다른 거랑 붙일 수 있을 것이고요.

00:30:11.166 --> 00:30:16.520
에, 다음 짚, 다음 신, 을

00:30:16.620 --> 00:30:20.560
다음 신다 할 때 신, 그다음에
었, 과거 선어말 어미.

00:30:20.660 --> 00:30:21.667
그다음 다.

00:30:21.767 --> 00:30:23.629
쪼개는 거 자체는
어렵지 않았습니다.

00:30:23.729 --> 00:30:29.793
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
자립을 찾아보도록 하죠.

00:30:29.893 --> 00:30:32.149
자립 찾아보면 어떻냐.

00:30:32.249 --> 00:30:34.129
옛, 자립이죠.

00:30:34.229 --> 00:30:36.862
왜요? 여기서 왔으니까.

00:30:36.962 --> 00:30:39.154
우리 관형사 자립이라고 했습니다.

00:30:39.254 --> 00:30:43.221
사람, 자립이에요.

00:30:43.321 --> 00:30:45.685
들, 들은 자립이 아니죠.

00:30:45.785 --> 00:30:47.889
들은 무조건 혼자 쓸
수 있는 것이 아니라

00:30:47.989 --> 00:30:50.153
복수를 의미하는 거기
때문에 뒤에 써야 되죠.

00:30:50.253 --> 00:30:52.844
~들 하는 식으로
붙여만 써야 됩니다.

00:30:52.944 --> 00:30:55.094
다음에 은, 조사잖아요.

00:30:55.194 --> 00:30:57.152
다음, 맨.

00:30:57.252 --> 00:31:00.754
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.

00:31:00.854 --> 00:31:06.465
맨 띄고 x, 이렇게
꾸미는 구성 있습니까?

00:31:06.565 --> 00:31:10.096
아무 것도 없이 그것만의 의미를
가지고 있는 이 맨이잖아요.

00:31:10.196 --> 00:31:12.487
맨발 하면 아무것도 안 신었어요.

00:31:12.587 --> 00:31:13.670
그냥 발.

00:31:13.770 --> 00:31:15.680
맨손 하면 아무것도
없이 이거 하나.

00:31:15.780 --> 00:31:20.099
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
맨과 어떤 단어를 만들 때

00:31:20.199 --> 00:31:22.163
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냐면 거예요.

00:31:22.263 --> 00:31:26.302
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관형사로
인정해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.

00:31:26.402 --> 00:31:30.129
그러면 분명 얘도 뭔가 뒤에
있는 거 꾸며주는 것 같고

00:31:30.229 --> 00:31:31.883
얘도 뒤에 있는 거
꾸며주는 것 같고.

00:31:31.983 --> 00:31:35.383
이런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얘는
정체성이 이놈과 같지 않다.

00:31:35.483 --> 00:31:38.976
따라서 얘는 자립이 아니에요.

00:31:39.076 --> 00:31:43.005
의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설명을
드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.

00:31:43.105 --> 00:31:48.575
이때 들의 경우에 이거를
접미사라고 불러줄 것이고.

00:31:48.675 --> 00:31:56.862
다음, 여기 앞에 맨 같은 경우에는
접두사라고 불러줄 거예요.

00:31:56.962 --> 00:32:02.972
이제 바로 공부하게 되는 어근의
개념이 여기서 연결됩니다.

00:32:03.072 --> 00:32:07.134
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
사람 뒤에 붙어 쓰게 되는

00:32:07.234 --> 00:32:08.866
꼬리 미 자 접미사.

00:32:08.966 --> 00:32:11.884
발이라는 핵심 단어 앞에
붙여 쓰게 되는 맨,

00:32:11.984 --> 00:32:16.732
그러면 앞 두 자, 머리 두 자를
써서 접두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.

00:32:16.832 --> 00:32:19.898
관형사랑 접두사는 완벽하게 달라요.

00:32:19.998 --> 00:32:24.272

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고 접두사는
하나의 단어로 존재할 수 없죠.

00:32:24.372 --> 00:32:26.712
어근에 붙어 쓰지 않으면
아무 힘이 없습니다.

00:32:26.812 --> 00:32:30.237
따라서 이런 맨 같은
경우에는 자립이 아니다.

00:32:30.337 --> 00:32:32.761
그래서 발 명사, 자립.

00:32:32.861 --> 00:32:34.933
그다음 짚 명사, 자립.

00:32:35.033 --> 00:32:36.215
신 명사, 자립.

00:32:36.315 --> 00:32:37.776
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.

00:32:37.876 --> 00:32:45.337
그러면 여기서 우리가
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,

00:32:45.437 --> 00:32:47.492
자립과 의존을 따져봤을 때

00:32:47.592 --> 00:32:51.533
우선 부사나 관형사나 의존 명사는
자립 형태소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.

00:32:51.633 --> 00:32:53.945
그다음에 접두사나 접미사,

00:32:54.045 --> 00:32:58.907
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확장해주는
접두사나 접미사의 경우에는

00:32:59.007 --> 00:33:01.960
뭐에 해당한다? 의존성을 지닌다.

00:33:02.060 --> 00:33:07.113
어디에 붙어야 된다? 어근에 붙어야
되는 의존 형태소에 속합니다.

00:33:07.213 --> 00:33:11.729
따라서 이 두 가지만 잘 챙겨주면
자립과 의존의 경우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.

00:33:11.829 --> 00:33:16.367
조사, 용언의 어간과 어미,
그리고 어느 부분?

00:33:16.467 --> 00:33:23.638
접두사와 접미사가 여기 의존
형태소에 속하는 거고요.

00:33:23.738 --> 00:33:27.842

나머지 품사들은 전부 다 자립
쪽에서 쪼갤 수 있게 되죠.

00:33:27.942 --> 00:33:34.054
이번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
형태소로 공부를 할 텐데.

00:33:34.154 --> 00:33:37.219
실질 형태소와 형식
형태소를 설명할 때에는

00:33:37.319 --> 00:33:40.739
일단 이거를 다섯 번 읽어주세요.

00:33:40.839 --> 00:33:45.538
이 문장을 다섯 번 읽어주세요.

00:33:54.835 --> 00:33:58.022
실질 형태소는 어근인데요.

00:33:58.122 --> 00:34:02.483
말 그대로 말의 뿌리가
되는 거예요.

00:34:02.583 --> 00:34:10.753
그래서 이 어근과 대응되는 개념이
바로 접사가 되는 겁니다.

00:34:10.853 --> 00:34:14.614
그래서 일단 이 뿌리가
있어야지 가지가 있고

00:34:14.714 --> 00:34:17.180
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이
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34:17.280 --> 00:34:20.222
자립성 유무를 통해서 우리가
형태소를 구분해봤다면

00:34:20.322 --> 00:34:27.681
이번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
의미 유무를 따져봅니다.

00:34:30.993 --> 00:34:33.468
만약에 그 형태소가,

00:34:33.568 --> 00:34:35.834
형태소 쪼개는 방식은 똑같아요.

00:34:35.934 --> 00:34:38.267
그 형태소가 실질적인
뜻이 있다고 한다면

00:34:38.367 --> 00:34:41.322
그것을 실질 형태소라고 불러준다.

00:34:41.422 --> 00:34:46.409
만약에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
거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준다?

00:34:46.509 --> 00:34:55.415
형식 형태소 또는 다른 말로
문법 형태소라고도 불러준다.

00:34:55.515 --> 00:34:58.203
실질 형태소를 뭐라고 부른다?

00:34:58.303 --> 00:35:00.007
다른 말로 어근이라고 부릅니다.

00:35:00.107 --> 00:35:01.561
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.

00:35:01.661 --> 00:35:04.910
우리가 형태소를 조합을 해서
단어를 만들어낼 텐데,

00:35:05.010 --> 00:35:08.901
그 단어 9개 중에서 조사를
뺀다면 조사를 제외한다면

00:35:09.001 --> 00:35:14.918
나머지 8개의 단어들은 일단 그
안에 어근이 있어야 해요.

00:35:15.018 --> 00:35:18.697
아주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면
어근이 있어야 돼요.

00:35:18.797 --> 00:35:21.140
그래서 일단 이렇게
기억하면 됩니다.

00:35:21.240 --> 00:35:26.347
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는 어근이,
실질 형태소가 하나 이상 있다.

00:35:26.447 --> 00:35:28.373
이거를 역으로 공부하게 되면

00:35:28.473 --> 00:35:33.054
만약에 어떤 형태소를 쪼개놓고
이거 어근이었나? 아니었나?

00:35:33.154 --> 00:35:36.729
이거를 고민한다면 얘가 품사가
있었던가, 없었던가를

00:35:36.829 --> 00:35:38.627
판단하면 된다는 거죠.

00:35:38.727 --> 00:35:43.542
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을 때
바로 앞에 단어 나왔잖아요.

00:35:43.642 --> 00:35:49.681
옛사람, 맨발 이 차이입니다.

00:35:53.578 --> 00:35:55.350
이거를 누가 모르냐고요.

00:35:55.450 --> 00:35:57.289
옛하고 사람, 맨하고 발.

00:35:57.389 --> 00:35:59.799
2개의 형태소로 찢어야
된다는 거는 왜 모르겠냐.

00:35:59.899 --> 00:36:00.929
이거는 알아요.

00:36:01.029 --> 00:36:04.965
그런데 그래놓고 이게 지금 다음
시간에 공부해야 될 합성어,

00:36:05.065 --> 00:36:07.301
즉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냐.

00:36:07.401 --> 00:36:10.504
아니면 어근에 접두사나
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냐.

00:36:10.604 --> 00:36:13.891
이거를 고민할 때,

00:36:13.991 --> 00:36:16.883
사람이나 발은 확실히 명사라면,

00:36:16.983 --> 00:36:19.073
옛과 맨 때문이잖아요.

00:36:19.173 --> 00:36:22.720
이중에 품사를 가진 놈이
있다면 더 이상 못 쪼개니까

00:36:22.820 --> 00:36:24.816
그게 어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.

00:36:24.916 --> 00:36:28.816
그때 옛이 이거 관형사야,
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

00:36:28.916 --> 00:36:32.702
얘는 옛을 더이상 못 쪼개는
뭐가 된다?

00:36:32.802 --> 00:36:33.514
어근이 된다.

00:36:33.614 --> 00:36:35.616
따라서 위에 있는 거는
어근+어근의 결합이니까

00:36:35.716 --> 00:36:37.441
합성어라고 취급을 하게 되고.

00:36:37.541 --> 00:36:39.407
밑에 있는 경우에는 발은 어근인데

00:36:39.507 --> 00:36:44.319
맨이 띄어서 꾸미는 관형사가
아닌데, 그러면 얘는 접두사구나.

00:36:44.419 --> 00:36:48.291
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생어, 이렇게
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.

00:36:48.391 --> 00:36:51.270
물론 일부 접두사나 접미사,

00:36:51.370 --> 00:36:53.979
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심을
가져야 될 것들은

00:36:54.079 --> 00:36:55.921
다음 시간에 쭉 설명을 할 텐데.

00:36:56.021 --> 00:36:57.705
그래도 이런 정도의
센스가 필요해요.

00:36:57.805 --> 00:36:59.800
반대로도 접근해야 됩니다.

00:36:59.900 --> 00:37:10.162
만약 어떤 형태소를 나눴는데 그
형태소가 어근이 있다고 한다면

00:37:10.262 --> 00:37:13.148
그 어근을 가지는 품사도
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7:13.248 --> 00:37:16.191
이제 여러분, 정리를
잘 하셔야 돼요.

00:37:16.291 --> 00:37:20.205
지금 수업을 언제 듣느냐에
따라서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

00:37:20.305 --> 00:37:23.087
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분하고
모르는 분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데

00:37:23.187 --> 00:37:24.473
아는 친구들이 더 헷갈려요.

00:37:24.573 --> 00:37:25.848
이제부터 잘 들으세요.

00:37:25.948 --> 00:37:28.253
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했습니다.

00:37:28.353 --> 00:37:33.874
그다음에 반대로 형식
형태소는 뭐라고 부른다?

00:37:37.647 --> 00:37:39.983
접사라고 불러요.

00:37:40.083 --> 00:37:42.718
형식 형태소를 접사라고 부른다고?

00:37:42.818 --> 00:37:45.489
그러면 문제가 되는
거는 이런 겁니다.

00:37:45.589 --> 00:37:50.334
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

00:37:58.127 --> 00:38:01.207
위에 있는 거 형태소로
쪼개보도록 할게요.

00:38:01.307 --> 00:38:06.232
잠깐 멈춰 놓고 형태소부터
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8:06.332 --> 00:38:11.195
쪼개면 오늘, 은, 잘.

00:38:11.295 --> 00:38:12.243
잘은 부사죠.

00:38:12.343 --> 00:38:14.689
잘 먹다, 형태가 더 활용이
되는 게 아니에요.

00:38:14.789 --> 00:38:16.178
고정되어 있죠, 잘.

00:38:16.278 --> 00:38:22.369
다음 익, 은, 수박,
을, 먹, 었, 다.

00:38:22.469 --> 00:38:23.620
아까랑 형태소 똑같아요.

00:38:23.720 --> 00:38:25.597
형태소부터 끊어볼게요.

00:38:25.697 --> 00:38:30.140
그, 이야기, 를, 듣, 으니,

00:38:30.240 --> 00:38:34.059
그다음에 울, ㄹ 끊어내죠.

00:38:34.159 --> 00:38:36.721
그다음에 것, 그다음에 같, 다.

00:38:36.821 --> 00:38:42.495
옛, 사람, 들, 은, 맨, 발,
에, 짚, 신, 을, 신, 었, 다.

00:38:42.595 --> 00:38:44.764
똑같은 거였어요, 형태소는 됐고.

00:38:44.864 --> 00:38:48.101
그다음에 여기서 실질만
찾아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.

00:38:48.201 --> 00:38:50.420
뜻을 가지고 있는 놈.

00:38:50.520 --> 00:38:52.131
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?

00:38:52.231 --> 00:38:57.348
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는 어근이
하나 이상씩 있어야 된다고 했죠.

00:38:57.448 --> 00:38:58.612
오늘 명사죠.

00:38:58.712 --> 00:39:01.307
더 못 쪼개면 이놈이
어근이 되겠네요.

00:39:01.407 --> 00:39:02.871
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

00:39:02.971 --> 00:39:06.067
명사야, 더 못 쪼개,
그러면 얘는 어근이야.

00:39:06.167 --> 00:39:08.230
조사는 뺀다고 했죠,
조사를 제외한 나머지.

00:39:08.330 --> 00:39:11.032
잘, 품사가 뭐였어요? 부사.

00:39:11.132 --> 00:39:13.635
부사니까 더 못 쪼개는
이 잘이 뭐가 된다?

00:39:13.735 --> 00:39:15.290
어근이 돼야 되겠죠.

00:39:15.390 --> 00:39:17.652
익은의 품사는 뭐였습니까?

00:39:17.752 --> 00:39:19.156
익다라는 동사.

00:39:19.256 --> 00:39:20.665
익은 자체가 동사죠.

00:39:20.765 --> 00:39:24.308
익은이 동사인데 익은 안에
어근이 있어야 되잖아요.

00:39:24.408 --> 00:39:26.135
그러면 그 어근은 어디겠어요?

00:39:26.235 --> 00:39:29.853
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
익이지 은이 될 수는 없겠죠.

00:39:29.953 --> 00:39:32.274
그래서 얘가 익, 어근.

00:39:32.374 --> 00:39:35.959
다음 수박 자체가 명사이고
더 못 쪼개니까 얘 어근.

00:39:36.059 --> 00:39:37.957
다음, 먹었다 봅시다.

00:39:38.057 --> 00:39:41.034
먹었다에서 먹, 었, 다.

00:39:41.134 --> 00:39:43.271
사전에 찾으면 먹다를
찾아야 되는 단어입니다.

00:39:43.371 --> 00:39:47.291
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eat의
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

00:39:47.391 --> 00:39:51.098
먹이니까 이게 어근이 되겠죠.

00:39:51.198 --> 00:39:52.918
이렇게 어근의 개수를
딱 잡았습니다.

00:39:53.018 --> 00:39:54.837
그러면 나머지는 접사예요, 여러분.

00:39:54.937 --> 00:40:01.239
접사, 접사, 접사, 접사, 접사.

00:40:01.339 --> 00:40:07.126
여기서 여러분이 아예 모르고
있으면 그냥 듣는 친구가 있는데,

00:40:07.226 --> 00:40:08.920
저게 왜 접사예요?

00:40:09.020 --> 00:40:11.063
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
되게 많아야 될 텐데.

00:40:11.163 --> 00:40:12.768
그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죠.

00:40:12.868 --> 00:40:15.583
내가 알고 있는 접사는 이런 게
아닌데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

00:40:15.683 --> 00:40:17.006
아니에요, 접사 맞아요.

00:40:17.106 --> 00:40:21.940
접사라는 것은 형식 형태소를
달리 말하는 표현입니다.

00:40:22.040 --> 00:40:23.505
다음 것도 가볼게요.

00:40:23.605 --> 00:40:25.755
그 품사 뭐였어요?

00:40:25.855 --> 00:40:27.438
관형사, 지시 관형사.

00:40:27.538 --> 00:40:28.851
이야기를 꾸며줍니다.

00:40:28.951 --> 00:40:31.122
그리고 그라는 단어는
더 이상 못 쪼개요.

00:40:31.222 --> 00:40:32.795
그러면 얘는 어근.

00:40:32.895 --> 00:40:35.380
이야기 명사죠, 더 이상
못 쪼개요, 어근.

00:40:35.480 --> 00:40:39.176
그다음에 듣으니에서 듣이 어근.

00:40:39.276 --> 00:40:42.025
다음 울, ㄹ에서 울이 어근.

00:40:42.125 --> 00:40:44.714
다음 것, 의존 명사니까 어근.

00:40:44.814 --> 00:40:47.313
다음 같다에서 같, 어근.

00:40:47.413 --> 00:40:48.632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40:48.732 --> 00:40:50.050
다음 거 갑니다.

00:40:50.150 --> 00:40:54.419
옛 사람들은 했을 때 옛 품사 뭐였다?
관형사였죠.

00:40:54.519 --> 00:40:56.310
어근, 더 못 쪼개면.

00:40:56.410 --> 00:40:58.843
사람 어근, 명사 더
이상 못 쪼개잖아요.

00:40:58.943 --> 00:41:03.717
다음, 맨발에서 맨이 접두사였죠.

00:41:03.817 --> 00:41:05.691
발이 어근입니다.

00:41:05.791 --> 00:41:07.463
다음, 짚 명사.

00:41:07.563 --> 00:41:08.689
신, 명사.

00:41:08.789 --> 00:41:11.734
신다에서는 신, 어근이죠.

00:41:11.834 --> 00:41:14.218
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.

00:41:14.318 --> 00:41:15.821
어근 잘 찾았어요.

00:41:15.921 --> 00:41:19.993
그러면 여러분 이런
생각 했을 거예요.

00:41:20.093 --> 00:41:21.923
진짜 접사, 접사, 접사면

00:41:22.023 --> 00:41:24.348
아까 전에 제가 이거
접미사라고 했고

00:41:24.448 --> 00:41:28.609
이거 접두사라고 했죠.

00:41:31.141 --> 00:41:33.755
선생님, 이런 게 접사 아닙니까?

00:41:33.855 --> 00:41:35.726
얘네도 접사고요.

00:41:35.826 --> 00:41:39.414
조사나 어미들도 접사입니다.

00:41:39.514 --> 00:41:42.234
그래서 용어 정리를
하자면 이렇게 됩니다.

00:41:42.334 --> 00:41:46.331
접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.

00:41:46.431 --> 00:41:52.325
하나는 굴절 접사라는 게 있고.

00:41:52.425 --> 00:41:59.287
또 하나는 파생
접사라는 게 있습니다.

00:41:59.387 --> 00:42:03.237
접사는 기본적으로 붙어 쓰인다고
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

00:42:03.337 --> 00:42:08.205
어근에 붙어 쓰이는
기능을 가집니다.

00:42:08.305 --> 00:42:15.643
어근에 붙여 쓰는 기능이고요.

00:42:15.743 --> 00:42:20.793
그렇게 하므로 어근의
정보를 부여합니다.

00:42:24.876 --> 00:42:28.197
가령 생각해보면 이거 은, 조사인데

00:42:28.297 --> 00:42:31.877
오늘은 했을 때 은이 뭐예요?

보조사.

00:42:31.977 --> 00:42:36.477
오늘 이렇게 나왔을 때
얘를 집중시켜주는

00:42:36.577 --> 00:42:38.847
화제를 만들어주는 은이라는 거죠.

00:42:38.947 --> 00:42:43.005
또 만약에 오늘은 안 돼,
이런 식으로 나온다면

00:42:43.105 --> 00:42:45.878
그때는 오늘은 안 되고
다른 날은 된다는 의미니까

00:42:45.978 --> 00:42:48.684
대조의 의미를 가져다주는
뉘앙스를 보태주죠.

00:42:48.784 --> 00:42:50.278
우리 보조사 뉘앙스 있잖아요.

00:42:50.378 --> 00:42:53.557
그런데 이 은이라는 놈이
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

00:42:53.657 --> 00:42:56.299
그 앞에 의미를
부여해준다는 겁니다.

00:42:56.399 --> 00:42:57.857
또 마찬가지.

00:42:57.957 --> 00:42:59.862
잘 익은 수박이라고 했을 때

00:42:59.962 --> 00:43:02.792
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은만
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.

00:43:02.892 --> 00:43:06.844
은도 있고 익을도 있고
익던도 있고

00:43:06.944 --> 00:43:09.815
그런데 그중에 은을 선택했다는
거는 어떤 의미입니까?

00:43:09.915 --> 00:43:12.169
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.

00:43:12.269 --> 00:43:14.687
익다라는 행위가 이미
이루어져 있다.

00:43:14.787 --> 00:43:19.137
익을, 이렇게 되면
앞으로 익을 거다.

00:43:19.237 --> 00:43:24.637
그래서 은이나 을이나 던이나
이러한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

00:43:24.737 --> 00:43:27.046
역시나 어떠한 기능을
가지고는 있어요.

00:43:27.146 --> 00:43:29.563
단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

00:43:29.663 --> 00:43:33.211
어근에 붙어서야지만 어떤
정보를 더 주어지는 거죠.

00:43:33.311 --> 00:43:35.366
어근에 정보를 부여합니다.

00:43:35.466 --> 00:43:38.457
을도 수박 목적어야,
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.

00:43:38.557 --> 00:43:39.614
었, 과거야.

00:43:39.714 --> 00:43:42.855
다, 문장 끝내겠어.

00:43:42.955 --> 00:43:45.623
결국 뭐냐면 애네들 다 어근에
붙을 수밖에 없어요.

00:43:45.723 --> 00:43:48.259
붙어서 쓰고 그다음에 어근은
추가 정보 부여하고.

00:43:48.359 --> 00:43:54.153
하지만 굴절 접사는 단어를
만들지는 못해요.

00:44:01.100 --> 00:44:04.230
새 단어를 생성하지는
못합니다, 굴절은요.

00:44:04.330 --> 00:44:06.254
그래서 여기 굴절
접사에 해당하는 것이

00:44:06.354 --> 00:44:10.628
바로 조사와 어미가 여기에
들어가는 거고요.

00:44:10.728 --> 00:44:17.353
파생 접사는 단어를 만들어요.

00:44:17.453 --> 00:44:20.291
그래서 합성어, 파생어라는
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

00:44:20.391 --> 00:44:22.842
바로 여기에 있는 파생

접사랑 어근이 붙으면

00:44:22.942 --> 00:44:24.512
파생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.

00:44:24.612 --> 00:44:27.205
이렇게 단어가 생성이 되고
사전에 등재가 됩니다.

00:44:27.305 --> 00:44:31.202
그럴 때 쓰이는 파생
접사를 뭐라고 한다?

00:44:31.302 --> 00:44:35.955
접두사, 접미사를 여기에
잡아주게 되는 거죠.

00:44:36.055 --> 00:44:39.486
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
학교에서 형태소를 배울 때

00:44:39.586 --> 00:44:44.813
접사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에는
어근에 붙어서 단어 만들고

00:44:44.913 --> 00:44:46.875
이렇게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

00:44:46.975 --> 00:44:49.807
굳이 조사나 어미를 가지고 접사,
접사, 접사 이야기해버리면

00:44:49.907 --> 00:44:52.983
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런
언급은 안 했을 거예요.

00:44:53.083 --> 00:44:56.163
그러나 엄밀하게 구분을 지으면

00:44:56.263 --> 00:44:58.267
조사나 어미도 접사라는
말에는 쓰이게 됩니다.

00:44:58.367 --> 00:45:00.778
단 단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

00:45:00.878 --> 00:45:06.972
이제부터 편의상 수업 시간에
접사죠,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

00:45:07.072 --> 00:45:10.393
접두사, 접미사에만 한정해서
설명을 드릴 거고요.

00:45:10.493 --> 00:45:13.155
조사나 어미는 그냥 조사,
어미라고 말을 할 거예요.

00:45:13.255 --> 00:45:15.024
지금까지 여러분 배운
틀이 있으니까.

00:45:15.124 --> 00:45:18.350
그래서 단어를 만들어내는
힘을 가지고 있는 접사는

00:45:18.450 --> 00:45:20.484
접두사와 접미사를 이야기하고

00:45:20.584 --> 00:45:25.365
그리고 굴절 접사인
조사나 어미의 경우에는

00:45:25.465 --> 00:45:28.729
그냥 조사나 어미로 말하겠습니다.

00:45:28.829 --> 00:45:30.155
그렇게 이해하면 돼요.

00:45:30.255 --> 00:45:33.813
그러나 기본적인 의미, 조사나
어미도 접사는 맞다.

00:45:33.913 --> 00:45:38.936
굴절 접사, 이렇게 알면 되고요.

00:45:39.036 --> 00:45:43.265
이형태라는 거는 무엇이냐?

00:45:43.365 --> 00:45:59.681
이형태는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
다른 형태소를 말합니다.

00:45:59.781 --> 00:46:01.824
다를 이 자를 사용하는 거죠.

00:46:01.924 --> 00:46:07.559
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형태소.

00:46:07.659 --> 00:46:10.186
이제 위의 두 문장을 서로
견주어보도록 할게요.

00:46:10.286 --> 00:46:11.643
덧니를 뽑으니 아프다.

00:46:11.743 --> 00:46:12.918
강술을 마시니 취한다.

00:46:13.018 --> 00:46:18.051
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가 원인이고
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가 되죠.

00:46:18.151 --> 00:46:19.788
덧니를 뽑으니 아프다.

00:46:19.888 --> 00:46:21.422
그다음에 강술을 마시니 취한다.

00:46:21.522 --> 00:46:26.283
여러분, 강술이라고 할
때 강은 접두사예요.

00:46:26.383 --> 00:46:29.460
접두사가 아무것도 없이
그것만, 이런 의미가 있고.

00:46:29.560 --> 00:46:32.606
깡소주를 마셨다,
이런 말 하잖아요.

00:46:32.706 --> 00:46:34.311
깡이라는 거 아니에요.

00:46:34.411 --> 00:46:36.834
우리가 1음절을 세게
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

00:46:36.934 --> 00:46:38.844
저거 저거 말하는 뽄새 봐라.

00:46:38.944 --> 00:46:41.488
이것도 본새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.

00:46:41.588 --> 00:46:45.405
우리가 1음절을 세게 하느라고
그렇게 발음하는 것뿐이지

00:46:45.505 --> 00:46:46.978
강소주가 맞습니다.

00:46:47.078 --> 00:46:52.167
그래서 강소주, 강술 이렇게 이야기하면
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것.

00:46:52.267 --> 00:46:53.775
이런 의미를 가진 접두사.

00:46:53.875 --> 00:46:55.378
역시 뒤에 거가 중요해요.

00:46:55.478 --> 00:46:57.947
그래서 술만 먹는다,
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46:58.047 --> 00:47:00.525
그러면 어쨌든 덧니를
뽑으니 아프다.

00:47:00.625 --> 00:47:06.940
형태소를 구분하게 되면
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.

00:47:07.040 --> 00:47:09.291
덧, 니, 를

00:47:09.391 --> 00:47:12.905
뽑으니 어떻게 됩니까?
뽑, 으니.

00:47:13.005 --> 00:47:15.974
다음에 아프, 다
이렇게 끊어야겠죠.

00:47:16.074 --> 00:47:18.414
덧니는 덧하고 니를 쪼개야 되겠죠.

00:47:18.514 --> 00:47:20.918
왜? 니도 꼭 덧이랑
붙을 이유 없어요.

00:47:21.018 --> 00:47:22.181
사랑니도 있어요.

00:47:22.281 --> 00:47:23.475
덧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47:23.575 --> 00:47:24.673
니랑 붙을 필요 없어요.

00:47:24.773 --> 00:47:26.945
덧신,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.

00:47:27.045 --> 00:47:28.763
다음 를 마찬가지이고.

00:47:28.863 --> 00:47:30.790
꼭 뒤에 은이 붙어야
되는 거 아니죠.

00:47:30.890 --> 00:47:36.688
뽑지, 뽑더라, 뽑는, 뽑고,
뽑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고요.

00:47:36.788 --> 00:47:38.770
또 아프다, 아프고,
아프지 쪼개면 됩니다.

00:47:38.870 --> 00:47:40.909
그다음 강술을 마시니 취한다.

00:47:41.009 --> 00:47:53.282
강, 술, 을, 마시, 연결 어미 니,
취, 하다 할 때 하, ㄴ다.

00:47:53.382 --> 00:47:57.162
이렇게 쪼개면 돼요.

00:47:57.262 --> 00:48:01.931
한은 이게 뭐예요?
라고 할 수 있는데

00:48:02.031 --> 00:48:04.218
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
좀 더 이해하기 쉽고.

00:48:04.318 --> 00:48:07.533
마지막에 ㄴ다의 경우에는
논란이 좀 많이 돼요.

00:48:07.633 --> 00:48:12.172
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
형태소 구분 문제를 낸다면

00:48:12.272 --> 00:48:16.809
과거 형태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
딱 다로 끝나는 형태를 주지

00:48:16.909 --> 00:48:18.799
딱 ㄴ다는 안 주려고 합니다.

00:48:18.899 --> 00:48:20.797
이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

00:48:20.897 --> 00:48:23.871
그래서 ㄴ하고 다를 더 쪼갤
수 있다, 아니다라는 입장.

00:48:23.971 --> 00:48:25.895
국립 국어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

00:48:25.995 --> 00:48:28.331
ㄴ다를 하나 짜리 어미로
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

00:48:28.431 --> 00:48:29.675
저는 이렇게 쪼개겠습니다.

00:48:29.775 --> 00:48:32.499
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
싶은 거는 뭐냐면.

00:48:32.599 --> 00:48:36.589
덧니를 뽑으니 아프다,
강술을 마시니 취한다.

00:48:36.689 --> 00:48:41.694
이때 ~하니까 ~하다라는 원인,
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뉘앙스는

00:48:41.794 --> 00:48:45.604
바로 이 부분이죠.

00:48:45.704 --> 00:48:47.336
이해되십니까?

00:48:47.436 --> 00:48:49.883
또 앞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.

00:48:49.983 --> 00:48:52.376
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얘 목적어죠.

00:48:52.476 --> 00:48:55.332
그리고 얘도 지금 목적어입니다.
맞습니까?

00:48:55.432 --> 00:48:57.465
형태소 개수는 됐고요.

00:48:57.565 --> 00:49:01.286
그놈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.

00:49:01.386 --> 00:49:05.843
이놈하고 이놈하고 기능
같아요, 달라요?

00:49:05.943 --> 00:49:08.993
똑같죠, 똑같은 목적어
만들어주는 놈이에요.

00:49:09.093 --> 00:49:13.408
다음 으니랑 니랑
기능 같아요, 달라요? 같죠.

00:49:13.508 --> 00:49:16.666
용언의 어간 뽑이나
마시 뒤에 붙어서

00:49:16.766 --> 00:49:20.189
뒤에 있는 것과 원인, 결과의 관계를
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.

00:49:20.289 --> 00:49:24.045
그래서 얘랑 얘랑 기능이 같고

00:49:24.145 --> 00:49:27.115
얘랑 얘랑 기능이 같지만
형태가 왜 다르냐고 한다면

00:49:27.215 --> 00:49:29.269
환경적 차이가 생기죠.

00:49:29.369 --> 00:49:31.813
언제 를 쓰고 언제 을
쓰는지 누가 모르겠어요?

00:49:31.913 --> 00:49:33.355
단어에 받침이 없어요.

00:49:33.455 --> 00:49:34.733
그래서 뒤에 를을 씁니다.

00:49:34.833 --> 00:49:37.019
받침이 있네요? 그래서
을을 쓰는 거죠.

00:49:37.119 --> 00:49:41.448
또 받침이 있으니까 매개 모음 으를
필요로 하는 으니가 오는 거고.

00:49:41.548 --> 00:49:44.372
또 받침이 없으니까
니가 와주는 거죠.

00:49:44.472 --> 00:49:46.871
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고 없고,

00:49:46.971 --> 00:50:08.636
즉 선행 단어에 말음, 마지막이
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.

00:50:08.736 --> 00:50:14.737
받침이 있냐 없냐에
따라 나눠지는 구분들.

00:50:14.837 --> 00:50:17.024

첫 번째 케이스는
이런 것들이 있고요.

00:50:17.124 --> 00:50:18.780
두 번째 볼까요?

00:50:18.880 --> 00:50:21.342
아들아, 토끼를 잡아서 팔아라.

00:50:21.442 --> 00:50:22.943
여기도 마찬가지예요.

00:50:23.043 --> 00:50:26.252
아들아, 첫째야 뭐의 차이예요?

00:50:26.352 --> 00:50:29.183
부르는 기능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?

00:50:29.283 --> 00:50:33.114
받침이 있으니까 아 쓰고 받침이
없으니까 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50:33.214 --> 00:50:35.398
똑같은 기능이고요, 부르는 거는.

00:50:35.498 --> 00:50:36.763
다음, 토끼를 딸기를.

00:50:36.863 --> 00:50:38.928
여기 받침이 둘 다 없으니까
를 쓰는 거잖아요.

00:50:39.028 --> 00:50:41.340
다음, 잡아서 팔아라.

00:50:41.440 --> 00:50:45.642
씻어서 먹어라, 라고 할 때
이거랑 이거랑 기능 똑같죠.

00:50:45.742 --> 00:50:47.613
이거랑 이거랑 기능이 똑같습니다.

00:50:47.713 --> 00:50:50.229
아서랑 어서랑 기능이 똑같아요.

00:50:50.329 --> 00:50:54.149
다음, 팔아라 먹어라 할 때
이 아라, 어라.

00:50:54.249 --> 00:50:56.656
이것도 기능이 똑같죠,
명령의 기능이니까.

00:50:56.756 --> 00:50:59.774
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
노란색으로 쓴 거는

00:50:59.874 --> 00:51:02.779
받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
아닌 것 같은데요?

00:51:02.879 --> 00:51:04.240
얘는 어떤 경우냐?

00:51:04.340 --> 00:51:07.065
두 번째 경우.

00:51:07.165 --> 00:51:11.734
모음 조화를 지켜주는 거죠.

00:51:11.834 --> 00:51:18.996
우리 모음 조화라는 거는
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.

00:51:19.096 --> 00:51:23.390
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
끼리 묶어주는 방식입니다.

00:51:23.490 --> 00:51:27.924
그래서 전통적으로 아,
오 계열의 경우에는

00:51:28.024 --> 00:51:30.784
이렇게 아로 시작하는
어미들이 와주고.

00:51:30.884 --> 00:51:33.666
그 외에 으나 이나,
이거는 중성인데.

00:51:33.766 --> 00:51:36.306
또 어나 우나 이런 식으로 왔을 때

00:51:36.406 --> 00:51:41.481
어라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
어미가 와주는 그런 규칙성이죠.

00:51:41.581 --> 00:51:43.786
그래서 지금 얘나 얘,

00:51:43.886 --> 00:51:45.516
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.

00:51:45.616 --> 00:51:49.560
즉 선행 단어의 말음이 자음이냐,
모음이냐로 끝나는 경우나

00:51:49.660 --> 00:51:53.247
또 모음 조화를 지켜서 양성, 양성,
음성, 음성 묶어주려고 하는 거나

00:51:53.347 --> 00:51:58.735
둘 다 음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두
가지들의 형태소들이 나오는 거예요.

00:51:58.835 --> 00:52:01.136
그래서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

00:52:01.236 --> 00:52:09.075
전부 다 음운론적 이형태
관계라고 합니다.

00:52:09.175 --> 00:52:14.046
음운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
되는 이형태 관계.

00:52:14.146 --> 00:52:17.101
기능은 같지만 형태가
다르다는 거죠.

00:52:17.201 --> 00:52:19.690
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?

00:52:19.790 --> 00:52:21.602
꼭 승리해서 돌아오너라.

00:52:21.702 --> 00:52:24.001
이것도 지금 관계를 보면,

00:52:24.101 --> 00:52:25.985
토끼를 잡아서 팔아라.

00:52:26.085 --> 00:52:27.329
딸기를 씻어서 먹어라.

00:52:27.429 --> 00:52:29.057
꼭 승리해서 돌아오너라.

00:52:29.157 --> 00:52:30.744
구성이 똑같아요.

00:52:30.844 --> 00:52:33.186
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,

00:52:33.286 --> 00:52:36.639
승리해서, 이거 형태소를
쪼개면 어떻게 되느냐.

00:52:36.739 --> 00:52:41.344
승리는 일단 한자어인데 빼고
해서를 한번 나눠볼게요.

00:52:41.444 --> 00:52:47.389
승리, 그다음 더하기
여서의 준말이에요.

00:52:47.489 --> 00:52:50.569
그래서 하여서를 줄이면
해서가 나오는 거거든요.

00:52:50.669 --> 00:52:58.323
그러면 얘는 여서라는
특이한 놈이 온 거예요.

00:52:58.423 --> 00:53:00.932
기능은 얘네랑 같은데.

00:53:01.032 --> 00:53:03.553
아서, 어서, 여서
이거 기능 같은데

00:53:03.653 --> 00:53:06.542
아서, 어서는 앞에

용언의 어간 부분에

00:53:06.642 --> 00:53:09.661
모음이 양성, 음성 이런 거
따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.

00:53:09.761 --> 00:53:14.391
하면 양성이니까 하아서 이랬어야
될 거 아니에요, 승리하아서.

00:53:14.491 --> 00:53:17.169
그런데 그게 아니라 승리하여서,

00:53:17.269 --> 00:53:19.919
이렇게 특이한 어미가 오게 됩니다.

00:53:20.019 --> 00:53:25.177
그래서 얘는 하다 계열 또는
A하다 계열 뒤에 온다고 하여서

00:53:25.277 --> 00:53:27.864
얘를 이형태 관계라고는 보는데

00:53:27.964 --> 00:53:29.962
이런 놈들이 다 이형태
관계이기는 한데

00:53:30.062 --> 00:53:33.331
이런 놈의 경우에는 특이한
형태소이기 때문에

00:53:33.431 --> 00:53:38.487
형태론적 이형태라는 표현을
또 쓰게 됩니다.

00:53:38.587 --> 00:53:42.804
많은 양이 없죠, 당연히.

00:53:42.904 --> 00:53:45.540
그리고 이런 형태론적
이형태 관계에는

00:53:45.640 --> 00:53:47.595
우리가 이미 용언의 활용에서

00:53:47.695 --> 00:53:50.719
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
따질 때 공부를 했습니다.

00:53:50.819 --> 00:53:55.099
하다나 A하다의
구조는 여라 불규칙.

00:53:55.199 --> 00:53:56.725
이런 식으로 잡아줬잖아요.

00:53:56.825 --> 00:53:59.081
그래서 돌아오너라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53:59.181 --> 00:54:02.905
돌다, 아, 오, 마지막에 너라.

00:54:03.005 --> 00:54:09.103
그러면 이것도 아라, 어라, 너라
같은 기능 아니냐.

00:54:09.203 --> 00:54:11.599
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
좀 많을 텐데.

00:54:11.699 --> 00:54:16.244
너라의 경우에는 조금 예스러운
느낌이 더해져 있거든요.

00:54:16.344 --> 00:54:21.105
그러나 전통적인 설명에 의하면 아라,
어라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나

00:54:21.205 --> 00:54:23.253
오 뒤에만 유일하게
올 수 있다고 해서

00:54:23.353 --> 00:54:27.717
이것도 역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
잡아주는 그런 경우로 설명을 합니다.

00:54:27.817 --> 00:54:30.730
이 부분은 수능에는
출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

00:54:30.830 --> 00:54:33.252
내신에서는 선생님의 설명을
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.

00:54:33.352 --> 00:54:38.725
최신의 경향으로 보게 되면 너라는
사실 이형태가 아니어야만 해요.

00:54:38.825 --> 00:54:40.976
왜? 의미가 좀 달라졌으니까.

00:54:41.076 --> 00:54:42.830
얘네들은 그냥 단순 명령이라면

00:54:42.930 --> 00:54:45.275
얘는 예스러운 명령으로
좀 의미가 다르거든요.

00:54:45.375 --> 00:54:48.792
그러나 전통적 설명에서는
같은 거로 봤기 때문에

00:54:48.892 --> 00:54:51.416
학교 선생님의 의견을
따라가면 되겠습니다.

00:54:51.516 --> 00:54:54.393
이형태가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?

00:54:54.493 --> 00:54:59.569
기능은 같으나 형태는 다른 것들.

00:54:59.669 --> 00:55:01.736
이제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.

00:55:01.836 --> 00:55:04.603
이 다섯 문제를 여러분이
잠깐 멈춰 놓으시고

00:55:04.703 --> 00:55:08.447
형태소를 끊어보시고요.

00:55:08.547 --> 00:55:11.913
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.

00:55:12.013 --> 00:55:14.453
형태소 분리.

00:55:14.553 --> 00:55:23.662
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
형태소로 동그라미.

00:55:23.762 --> 00:55:26.536
이 작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

00:55:26.636 --> 00:55:30.029
잠시 멈춰놓고 진행하시죠.

00:55:30.129 --> 00:55:33.665
그러면 답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.

00:55:33.765 --> 00:55:36.031
처음에는 되게 쉬운 것들이고요.

00:55:36.131 --> 00:55:38.350
뒤로 갈수록 복잡성을
가지고 있을 거예요.

00:55:38.450 --> 00:55:40.201
먼저 1번 가겠습니다.

00:55:40.301 --> 00:55:42.685
달, 님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.

00:55:42.785 --> 00:55:44.672
해님도 있으니까.

00:55:44.772 --> 00:55:51.479
다음 에게, 너에게, 님에게
에게 조사죠.

00:55:51.579 --> 00:55:54.247
다음 물어 봐의 경우에는
어떻게 될까요?

00:55:54.347 --> 00:55:59.053
원형이 묻다+어인데,

00:55:59.153 --> 00:56:02.057
활용을 하다 보니까 ㄷ이
ㄹ로 변하게 되죠.

00:56:02.157 --> 00:56:07.214

그래서 어쨌든 이거 물, 어,
그다음에 봐 어떻게 쪼갠다?

00:56:07.314 --> 00:56:09.892
보+아.

00:56:09.992 --> 00:56:11.662
종결 어미가 필요했습니다.

00:56:11.762 --> 00:56:14.748
그래서 물어보아, 이렇게 해서
형태소가 나누어지는 거죠.

00:56:14.848 --> 00:56:19.802
개수는 7개가 나옵니다.

00:56:19.902 --> 00:56:22.911
이중에서 어근만
따져보면 어떻게 되죠?

00:56:23.011 --> 00:56:30.303
달 어근, 묻다 묻 어근,
보다 보 어근.

00:56:30.403 --> 00:56:32.635
이렇게 처리가 되겠죠.

00:56:32.735 --> 00:56:34.450
님, 접미사입니다.

00:56:34.550 --> 00:56:37.733
님아 님아, 잘못 쓰는 표현이에요.

00:56:37.833 --> 00:56:40.169
그때는 임이라는 표현을
쓸 수 있습니다.

00:56:40.269 --> 00:56:43.447
님이라는 명사는 존재하지
않아요, 접미사로 써야 돼요.

00:56:43.547 --> 00:56:45.746
그래서 항상 님은 붙여만
쓰는 거라고요.

00:56:45.846 --> 00:56:49.854
그래서 달님, 선생님,
사장님 이렇게 쓰는 거죠.

00:56:49.954 --> 00:56:54.804
그다음 동사, 동사이기 때문에 각각의
어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.

00:56:54.904 --> 00:56:57.351
처음에 나와 있는
부분이 어근입니다.

00:56:57.451 --> 00:56:59.110
2번 가보도록 하죠.

00:56:59.210 --> 00:57:01.289

산에 올라 소리를 질렀다.

00:57:01.389 --> 00:57:04.015
형태소 산, 에.

00:57:04.115 --> 00:57:08.096
올라를 사전에서 찾아야 된다면
오르다를 찾아야 되겠네요.

00:57:08.196 --> 00:57:14.491
그래서 오르다+아가 붙었을
때 불규칙 용언 걸리죠?

00:57:14.591 --> 00:57:17.813
그래서 으 빠지고 ㄹ
들어가면 올라가 만들어집니다.

00:57:17.913 --> 00:57:22.527
형태소를 이렇게 원형으로
나눠놓고 쪼갭니다.

00:57:22.627 --> 00:57:24.877
다음 소리, 를.

00:57:24.977 --> 00:57:27.426
질렀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

00:57:27.526 --> 00:57:33.693
쪼개게 되면 지르+다+과거 었+다
이렇게 나오는 거죠.

00:57:33.793 --> 00:57:37.237
그래서 질렀다가 나옵니다.

00:57:37.337 --> 00:57:38.919
그러면 개수는요?

00:57:39.019 --> 00:57:43.863
9개이고.

00:57:43.963 --> 00:57:48.309
그중에서 어근을
따져보면 산, 명사죠.

00:57:48.409 --> 00:57:51.071
다음에 오르다, 동사에서 오르.

00:57:51.171 --> 00:57:52.623
소리, 명사.

00:57:52.723 --> 00:57:54.190
지르다 동사에서 지르.

00:57:54.290 --> 00:57:56.750
이렇게 해서 4개가
실질 형태소 잡히죠.

00:57:56.850 --> 00:58:01.392
다음 3번 가겠습니다.

00:58:01.492 --> 00:58:02.575

3번 형태소 끊어볼까요?

00:58:02.675 --> 00:58:03.684
동생 하나 짜리죠.

00:58:03.784 --> 00:58:06.020
쪼개게 되면 아우의
의미는 없어져요.

00:58:06.120 --> 00:58:09.612
한테, 이거 부사격 조사였죠.

00:58:09.712 --> 00:58:16.054
~에게, ~더러, ~보고, ~한테
이러면 이거 구어체적 표현인데

00:58:16.154 --> 00:58:18.038
더 이상은 쪼갤 수 없어요.

00:58:18.138 --> 00:58:20.306
그러니까 한테는 하나 짜리.

00:58:20.406 --> 00:58:21.630
다음 물.

00:58:21.730 --> 00:58:23.528
다음 끓이라고 시켰어.

00:58:23.628 --> 00:58:25.331
끓이라고 어떻게 될까요?

00:58:25.431 --> 00:58:27.127
끓, 끓다부터 나올 수 있죠.

00:58:27.227 --> 00:58:28.286
끓다, 끓이다.

00:58:28.386 --> 00:58:30.502
만약에 이가 들어가게
되면 끓다, 끓이다.

00:58:30.602 --> 00:58:34.156
끓다가 나오면 그냥
알아서 끓는 거고

00:58:34.256 --> 00:58:36.135
끓이다면 그렇게 끓도록 만든 거.

00:58:36.235 --> 00:58:39.759
만들다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
있는 거죠, 뉘앙스가.

00:58:39.859 --> 00:58:42.236
이거 접미사라고 합니다.

00:58:42.336 --> 00:58:44.002
사동 접미사, 나중에 볼 거예요.

00:58:44.102 --> 00:58:45.675
끓다, 끓이다.

00:58:45.775 --> 00:58:48.444
그다음 끓이라고 시켰어.

00:58:48.544 --> 00:58:51.913
이거 라고를 하나 짜리로
잡을 수가 없어요.

00:58:52.013 --> 00:58:53.642
왜? 우리 공부했었잖아요.

00:58:53.742 --> 00:58:55.330
라고랑 고의 차이가 뭡니까?

00:58:55.430 --> 00:58:59.104
라고는 직접 인용 부사격
조사, 따옴표 나와야 되고.

00:58:59.204 --> 00:59:00.689
그다음 고가 간접 인용.

00:59:00.789 --> 00:59:02.578
얘 지금 따옴표
없어요, 간접 인용.

00:59:02.678 --> 00:59:05.507
따라서 명령형 어미로
라가 있었던 거죠.

00:59:05.607 --> 00:59:06.661
간접 명령, 끓이라.

00:59:06.761 --> 00:59:10.304
그다음에 고라는 조사가 뒤에
붙어 있는 상황입니다.

00:59:10.404 --> 00:59:13.330
다음요, 시켰어 어떻게 됩니까?

00:59:13.430 --> 00:59:14.669
원형은 시키다죠.

00:59:14.769 --> 00:59:20.507
시키다+과거 선어말 었+어
이렇게 간 거죠.

00:59:20.607 --> 00:59:22.976
시키었어 줄여서 시켰어 나온 거죠.

00:59:23.076 --> 00:59:24.247
쪼개고 쪼개고.

00:59:24.347 --> 00:59:29.706
그러면 10개의 형태소가 나오고

00:59:29.806 --> 00:59:35.292
이중에서 어근은 동생,
물, 끓다의 끓이겠죠.

00:59:35.392 --> 00:59:40.171
다음에 시키다에 시키,
이렇게 해서 4개.

00:59:40.271 --> 00:59:45.686
나머지는 다 조사, 실질 아니죠.

00:59:45.786 --> 00:59:47.894
다음 끊이다 할 때
이는 뭐라고 했어요?

00:59:47.994 --> 00:59:49.181
접미사라고 했습니다.

00:59:49.281 --> 00:59:51.782
다음 라는 종결 어미가
되는 거고요.

00:59:51.882 --> 00:59:53.821
그다음에 보는 역시나 조사예요.

00:59:53.921 --> 00:59:57.841
다 그러면 어미나 조사나 접두사, 접미사
전부 다 실질과는 상관이 없죠.

00:59:57.941 --> 01:00:00.105
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.

01:00:00.205 --> 01:00:04.452
돛단배가, 이거 어떻게 쪼갤까요?

01:00:04.552 --> 01:00:06.340
이렇게 돼야 돼요.

01:00:06.440 --> 01:00:10.938
우선 돛단배 구성을
써보면 이렇게 됩니다.

01:00:11.038 --> 01:00:15.743
돛+달다.

01:00:15.843 --> 01:00:24.113
돛을 달다 할 때
달다+ㄴ+배인 거죠.

01:00:24.213 --> 01:00:29.032
돛을 달 배냐 돛을 달았던
배냐, 돛을 단 배냐.

01:00:29.132 --> 01:00:30.850
이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1:00:30.950 --> 01:00:37.355
그래서 달다라는 어간에 어미로
ㄴ이나 ㅂ이나 ㅅ이나 오게 되면

01:00:37.455 --> 01:00:38.658
ㄹ 자리 내주게 됩니다.

01:00:38.758 --> 01:00:41.670
그래서 얘가 이 자리 차지하면서
얘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?

01:00:41.770 --> 01:00:42.959

그래서 돛단배 나온 거죠.

01:00:43.059 --> 01:00:45.085
형태소는 몇 개예요? 4개
쪼개야 된다는 이야기죠.

01:00:45.185 --> 01:00:50.903
그래서 돛단배는 돛, 그다음에 달다,
그다음에 ㄴ, 그다음에 배.

01:00:51.003 --> 01:00:52.970
이렇게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.

01:00:53.070 --> 01:00:56.492
다음 가, 바람, 에.

01:00:56.592 --> 01:00:59.633
떠내려갔네요, 이거 좀 분리
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.

01:00:59.733 --> 01:01:01.911
이쪽에 해볼게요.

01:01:02.011 --> 01:01:05.513
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

01:01:05.613 --> 01:01:08.504
원형은 떠다가 아니라 뜨다죠.

01:01:08.604 --> 01:01:14.335
뜨+어가 되기 위해서는
뭐가 필요해요?

01:01:14.435 --> 01:01:16.152
연결 어미 어가 필요하죠.

01:01:16.252 --> 01:01:18.017
그러면 으 탈락으로 떠가 나오죠.

01:01:18.117 --> 01:01:22.747
그다음 내려가 나오니까 내리어죠.

01:01:22.847 --> 01:01:25.561
내리다까지는 하나고 내리어.

01:01:25.661 --> 01:01:29.104
그다음 갔네요, 라고 이야기했어요.

01:01:29.204 --> 01:01:41.896
가다+과거 선어말 어미
았+종결 어미 네+보조사 요.

01:01:41.996 --> 01:01:43.363
이렇게 다 잘라낼 수 있죠.

01:01:43.463 --> 01:01:44.658
요는 없어도 되잖아요.

01:01:44.758 --> 01:01:46.403
떠내려갔네? 이럴
수도 있지 않습니까?

01:01:46.503 --> 01:01:48.360
그런데 거기에 요를
하나 더 붙인 거죠.

01:01:48.460 --> 01:01:50.005
떠내려갔네요.

01:01:50.105 --> 01:01:52.880
그러니까 엄청 많이 쪼갭니다.

01:01:52.980 --> 01:01:55.262
돛단배가, 4개고요.

01:01:55.362 --> 01:02:01.476
그다음에 15개로
형태소는 쪼개집니다.

01:02:01.576 --> 01:02:05.283
이중에서 어근이 뭔가를
따져보면 당연히 돛 명사죠.

01:02:05.383 --> 01:02:11.023
달다에서의 달 어근이죠.

01:02:11.123 --> 01:02:12.579
달다는 달이 어근이죠.

01:02:12.679 --> 01:02:15.437
그다음에 ㄴ은 안 되죠,
배는 어근이죠.

01:02:15.537 --> 01:02:20.595
그래서 돛단배에는 돛, 달다에서의
달, 배 어근이고요.

01:02:20.695 --> 01:02:24.346
그다음에 바람, 어근이고요.

01:02:24.446 --> 01:02:28.078
다음 떠내려갔네요에서 어근 찾으면
뭐만 찾으면 되는 거죠?

01:02:28.178 --> 01:02:32.132
용언에서는 접두사나
접미사만 빼버리면

01:02:32.232 --> 01:02:36.576
어간 영역 중에서 어근들만
싹싹 골라내면 되죠.

01:02:36.676 --> 01:02:41.080
뜨다, 내리, 가다 끝.

01:02:41.180 --> 01:02:43.573
기본형에서 다만 빼면
어근 남는 거예요.

01:02:43.673 --> 01:02:47.865
그러면 뜨다, 내리다,
가다에서 다만 딱 잘라낸

01:02:47.965 --> 01:02:50.306
뜨, 내리, 가가
어근이 되는 거죠.

01:02:50.406 --> 01:02:52.936
이렇게 해서 어근의
개수가 나오게 됩니다.

01:02:53.036 --> 01:02:54.959
5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

01:02:55.059 --> 01:03:00.579
잡스러운 일로 조금 바쁠 뿐이다.

01:03:00.679 --> 01:03:05.633
잡스러운은 일단 잡,
잡이 뭔데요?

01:03:05.733 --> 01:03:08.340
스러운은 어떻게 됐을까요?

01:03:08.440 --> 01:03:10.937
이 구성 보도록 할게요.

01:03:17.220 --> 01:03:18.365
이런 구조예요.

01:03:18.465 --> 01:03:24.222
이 스럽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
대표적인 접미사 중에 하나인데요.

01:03:24.322 --> 01:03:27.683
이게 보면 스럽이 꼭
잡만 붙는 게 아니라

01:03:27.783 --> 01:03:34.635
사랑스럽다, 촌스럽다, 탐스럽다,
복스럽다 이렇게 가는 거죠.

01:03:34.735 --> 01:03:38.345
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스럽을
잡이랑 쪼갤 수 있다는 거는

01:03:38.445 --> 01:03:39.548
여기서 알면 됩니다.

01:03:39.648 --> 01:03:40.871
형태소 잘라주면 되겠죠.

01:03:40.971 --> 01:03:46.306
그다음에 이 스럽다가
스럽고, 스럽지, 스럽더라.

01:03:46.406 --> 01:03:48.566
이런 식으로 많은
어미들을 선택을 할 텐데

01:03:48.666 --> 01:03:50.349
그중에 만약에 은과 선택을 하면

01:03:50.449 --> 01:03:52.762
얘는 또 ㅂ 불규칙
용언이 걸려들어가거든요.

01:03:52.862 --> 01:03:53.862
그러면 ㅂ이 어떻게 될까요?

01:03:53.962 --> 01:03:56.443
오나 우로 변할 텐데
얘는 우로 변합니다.

01:03:56.543 --> 01:03:59.565
그러면 ㅂ이 싹 없어지고 ㅂ이
넘어오면서 우로 바뀌니까

01:03:59.665 --> 01:04:01.986
은 자리에 이렇게
차지하게 되는 거죠.

01:04:02.086 --> 01:04:05.366
그래서 상상 활용을 할 때 ~스러운이라는
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.

01:04:05.466 --> 01:04:07.604
그러면 얘는 끊어줄
때 어떻게 된다?

01:04:07.704 --> 01:04:13.477
일단 잡 끊어주고, 스럽 끊어주고,
그다음에 은 끊어주고.

01:04:13.577 --> 01:04:14.994
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.

01:04:15.094 --> 01:04:17.991
그래서 잡스러은, 이렇게
되면 되는 거고요.

01:04:18.091 --> 01:04:21.495
다음 일, 로, 조금.

01:04:21.595 --> 01:04:24.517
조금은 부사니까 하나 짜리죠,
더 쪼갤 수는 없죠.

01:04:24.617 --> 01:04:25.917
바쁠 어떻게 쪼갤까요?

01:04:26.017 --> 01:04:29.046
바쁘다에 하나, 바쁘다에 바쁘.

01:04:29.146 --> 01:04:31.764
그다음에 ㄹ,
꾸며주기 위한 ㄹ.

01:04:31.864 --> 01:04:33.740
다음에 뿐.

01:04:33.840 --> 01:04:38.377
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
경우에도 이렇게 쪼개줘야죠.

01:04:38.477 --> 01:04:44.450
왜냐하면 잡스러운 일로 조금 바쁠 뿐이고,
바쁠 뿐이지, 바쁠 뿐이네.

01:04:44.550 --> 01:04:47.657
이런 식으로 다랑 꼭 이가 붙을 이유가
없었다는 겁니다.

01:04:47.757 --> 01:04:49.119
역시나 쪼개줍니다.

01:04:49.219 --> 01:04:51.588
그러면 이중에서 어근은
뭐가 나오느냐.

01:04:51.688 --> 01:04:54.751
스럽다 만들어주는 거 접미사라고
제가 말씀드렸어요.

01:04:54.851 --> 01:04:57.891
그러면 접미사니까 앞에가 뭐일 수밖에 없다?
어근.

01:04:57.991 --> 01:05:01.523
사랑스럽다, 탐스럽다, 복스럽다.

01:05:01.623 --> 01:05:04.110
앞에 나와 있는, 스럽
앞이 어근이 되는 겁니다.

01:05:04.210 --> 01:05:06.371
의미를 가지고 있는 놈, 어근.

01:05:06.471 --> 01:05:10.135
다음 일, 조금, 바쁘다에 바쁘,

01:05:10.235 --> 01:05:14.715
그리고 뿐은 기능이 뭐죠?
의존 명사였죠.

01:05:14.815 --> 01:05:16.714
의존 명사도 명사.

01:05:16.814 --> 01:05:20.134
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어근을
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.

01:05:20.234 --> 01:05:22.425
이 뿐도 어근이 되겠습니다.

01:05:22.525 --> 01:05:25.694
이렇게 해서 어근의 개수가
5개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.

01:05:25.794 --> 01:05:30.036
사실 형태소 쪼개는 것들에 대한
문제는 너무 많이 풀지 마시고요.

01:05:30.136 --> 01:05:32.108
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

01:05:32.208 --> 01:05:35.132
일단 이번 시간에는
형태소를 나누는 방식.

01:05:35.232 --> 01:05:37.932
그중에서 실질 형태소가
어근이라는 것,

01:05:38.032 --> 01:05:42.395
그리고 접사라는 것이 굴절과
그리고 파생 접사가 있는데

01:05:42.495 --> 01:05:45.320
그중에 파생 접사는 단어를
만드는 힘을 가진

01:05:45.420 --> 01:05:48.874
접두사, 접미사를 이야기한다는
점까지 기본 개념을 잡았고요.

01:05:48.974 --> 01:05:50.932
이거를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는

01:05:51.032 --> 01:05:52.896
단어의 형성법을
들어가도록 할 겁니다.

01:05:52.996 --> 01:05:54.284
수고하셨습니다.